

홍성문차

계 간

여름

홍성문화원

제20권 2호 통권 143호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편집주간: 구재기

·발행일: 2001년 6월 (여름호)

·발행처: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 632-3613)

·인쇄처: 조양인쇄사 (☎ 632-2363)



문화원 소식

- 문화행사의 이모저모/2

특별기고

- 청소년의 삶과 미래의 직업적 성공/38

알아보는 생활상식

- 생활의 지혜/48

망초꽃

현 자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꽃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씩 있다면
장미, 라일락, 프리지아꽃 말고
저 타는 6월의 들녘에 희끗희끗한
망초, 망초, 망초꽃 속엔 내 어머니.
평생을 흙밭로 논두둑, 밭두둑을 누비며 사신
얼굴에 분칠 한번 제대로 토닥이지 않으셔도
그저 좋아라, 내 마음의 참꽃이신 어머니
저물 무렵 직장에서
풀 죽은 걸음으로 동구에 들어설 때
야, 인저오나
진종일 고된 들일에도 아랑곳 없이
키를 넘는 풀포기 사이로 일어서시며
그 환희 웃고 서 계시던 어머니
언제나 눈물같은 내 어머니 꽃

홍성문채

2001/여름

계간/팔지 않는 책

- 2 문화원 소식 · 문화행사의 이모저모 · 편집부
- 6 홍성의 마을제 【洞祭】 ⑨ · 도깨비제 -장곡면 가송리 모개울 마을- · 김정현
- 9 우리의 다짐 · 홍주골 내고향 · 편집부
- 11 홍주의 얼을 찾아서 · 홍주목사(洪州牧使) 이안눌(李安訥) -홍양록(洪陽錄), 호영록(湖營錄), 동악집(東岳集)의 저자- · 배동순
- 13 우리고장의 전설/18 · 은봉산 · -서부면(西部面) 상황리(上黃里) 먹자울- · 구재기
- 17 사진칼럼 · 사진가가 되는 길 · 강태훈
- 21 홍주골 사람사는 이야기④ · 결성농요의 상쇠 이종완님을 찾아서 · 권기복
- 25 미술인 에세이⑥ · 영상미디어 미술의 혼란과 잃어버린 정체성 · 이재수
- 28 건강 · 세포의 원동력 · 김용신
- 29 교단의 눈 40 · 스승의 날 · 김영희
- 31 나의 삶 돌레에서 · 그 해 여름 · 고광철
- 34 생활 법률 상담 ·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여부 · 이영진
- 38 특별기고 · 청소년의 삶과 미래의 직업적 성공 · 윤운성
- 42 홍주마당
채찍 · 박미연
개구리 · 정명순
마음속 · 김임무
동창회 · 이영희
야영 · 이영희
- 48 알아보는 생활상식 · 생활의 지혜 · 편집부
- 49 회원모집 안내 · 편집부

홍성문화원 발행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편집주간 구재기

2001년 6월
 통권 143호
 1989년 11월 23일 등록

전화)041-632-3613
 634-9659
 인쇄처 · 조양인쇄사

문화행사의 이모저모

| 편집부 |



성년식 가관례 모습

▣ 성년의날 기념 행사 ▣

2001년 5월 21일 성년의 날을 맞아 홍성문화원과 혜전대가 공동주관으로 우리 고유 전통 성년식을 열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 목적은 성년자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책임감과 자긍심

을 높여주고 미래에 대한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지 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성년의날 제정 취지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에 달한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격려하고,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일깨워주며 자긍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였다.

성년의 권리는 민법 제4조에 의해 만 20세로 성인이 되며, 성인으로서 매매권 행사, 소유권 행사, 계약체결 등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있으며, 그밖에 약혼의 자유, 각종 선거권, 정당원의 가입 자격 등을 가지는 것이고, 성년의 의무는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지며, 도덕적으로는 도덕 현상에 관해 正, 善을 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전통 성년식의 관·계례 의미와 유래를 말하자면, 관·계례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혼인과 무관하게 관·계례를 가졌는데, 남자는 상투를 틀고 초립을 쓰고, 여자는 쪽을 써서 어른임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관·계례를 치른 후에는 어른으로 대접받고, 지역사회 대소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 남자의 경우 관례라 하고, 여자는 계례라고 한다. 어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관·계례는,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조상의 신위를 모셔놓은 사당에서 조상에 고하는 것으로 행해졌다. 관·계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여러 형태의 사회의식으로 행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를 전후한 개화기에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성년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행되고 있다. 보통 남자의 성년식은 집단적으로 행해진다. 반하여, 여자의 성년식은 가족적으로 행하여졌다. 성년식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시련에서 우리는 각 민족의 생활 철학을 읽어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방식에 따라 성년의식 행사를 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성문화원과 혜전대가 같이 주관한 성년의 날 전통관례 및 계례행사가 5월 21일 오전 11시 홍성읍 남장리에 위치한 혜전대 야외무대에서 이재호 학장님과 이하영원장님을 비롯한 각급 단체장과 학생,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혜전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성년의 날 의식행사는 혜전대 재학생 중 올해 만20세를 맞는



성년식 재가례 모습

870여명을 대표해 모델학과 현창희군과 양문양 등 21명을 선정, 성년식을 가졌다.

성년식 진행내용 순서로는 삼가례에는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가 있고, 가관례, 초례, 명자례, 성년선언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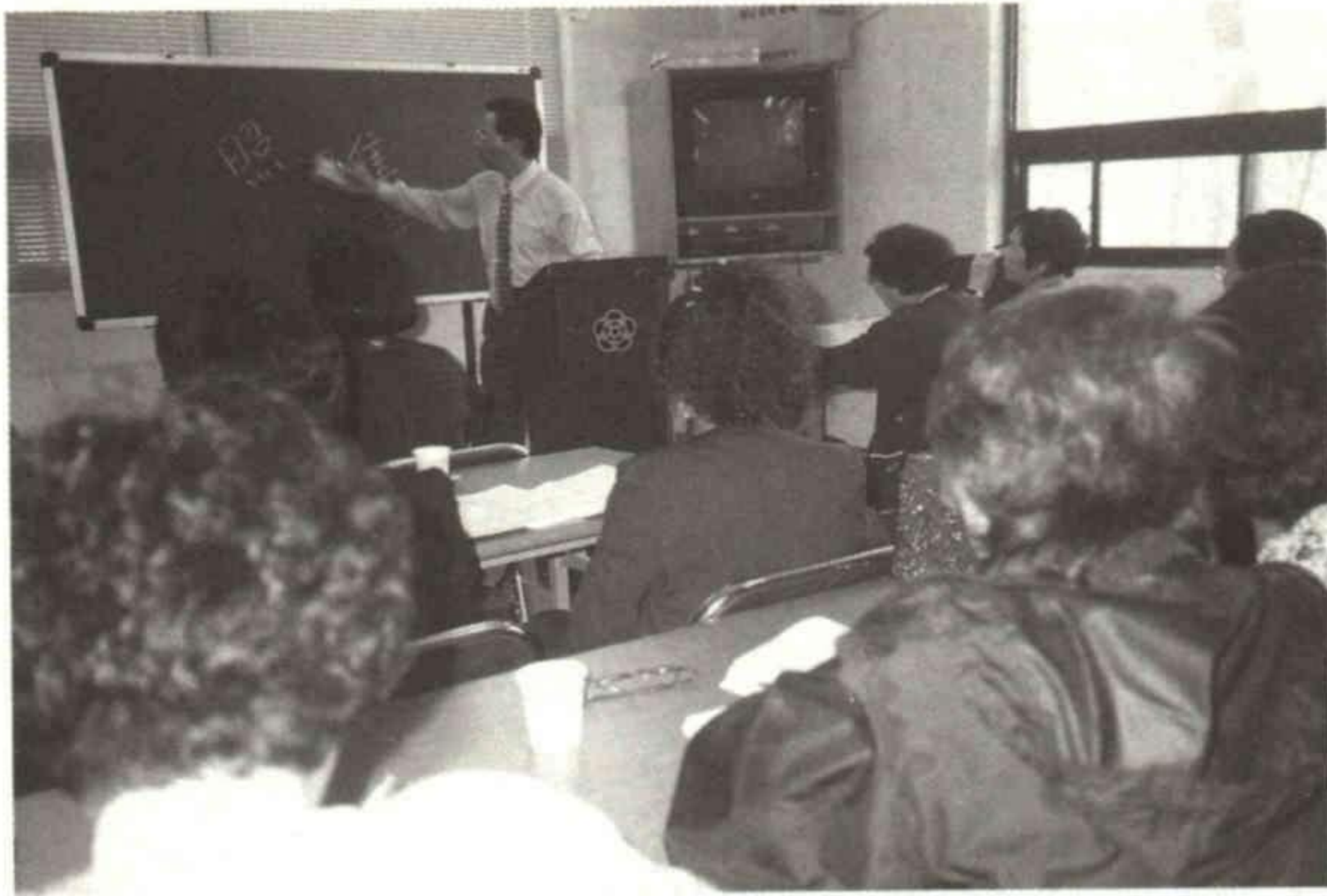
지역원로인 김세환씨(75, 전 홍주향토문화연구회 부회장)의 주례로 거행된 이날 성년의식 행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의식으로 진행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직접 성년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지한 눈빛은 우리 고유 전통의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날 성년식에 참여한 현창희군은 의식행사를 마친 후 '전통방식으로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성년식을 갖고 나니 진짜 성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생활개선회는 성년식이 끝나고, 행사 음식을 비롯 다과를 준비하는 등 총학생회와 함께 후원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성년식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맺습니다.☺



주부한문교실 강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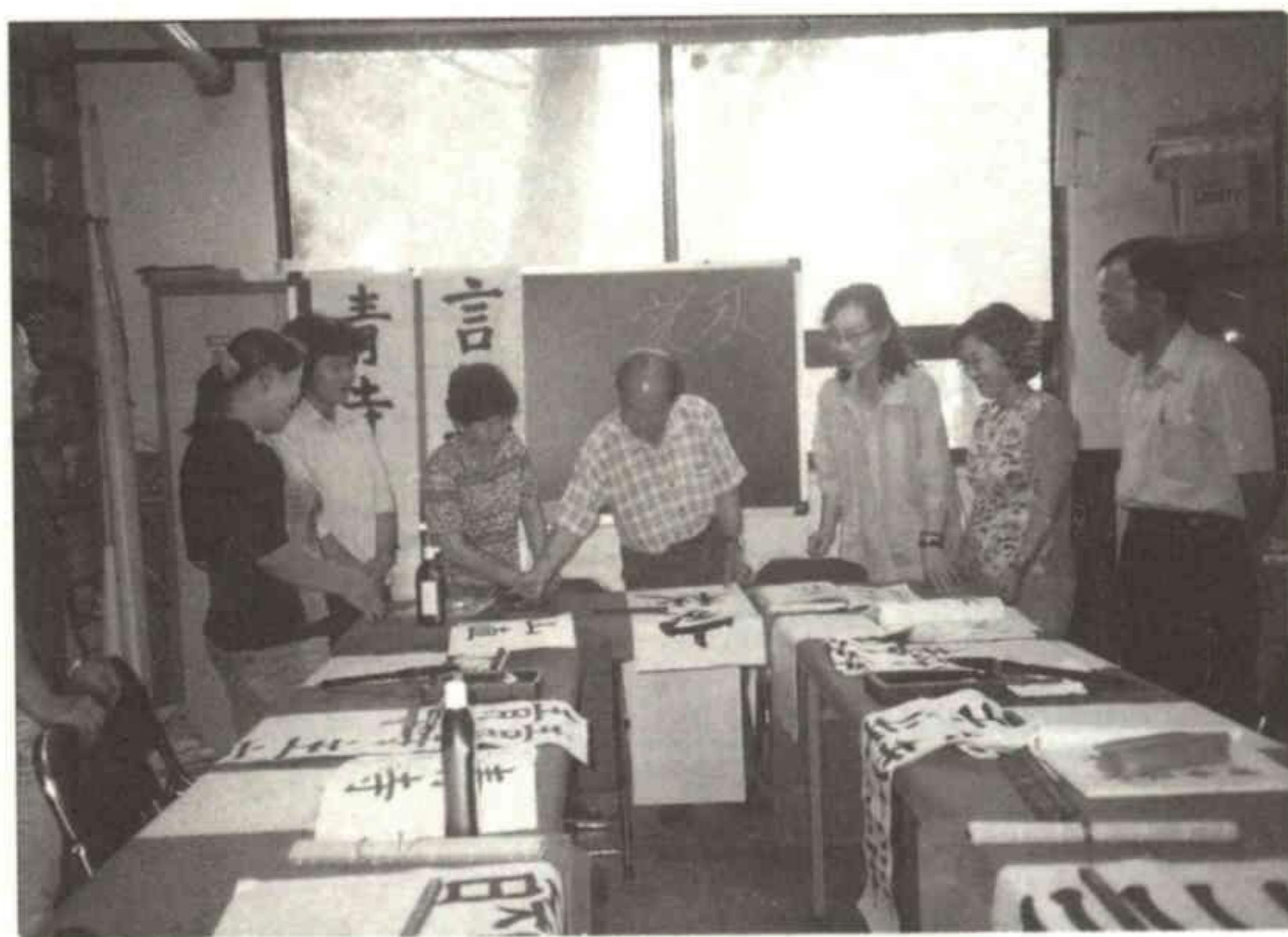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한문교실 ▣

주부한문교실은 기초생활 한자 교육 및 명심보감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부님들을 지도하시는 주호창(풀무고 교감) 선생님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주부님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서예교실 ▣

한자서예의 기초를 배우는 것으로 주부님들의 서예에 대한 관심과 열의로 자발적 배움의 시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예교실 강좌 모습

▣ 홍성 여성사우회 작품 전시회 ▣

홍성여성사우회에서 오는 6월 14일부터 15일

까지 3일간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에 힘써왔던 홍성여성사우회 회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여러분의 문화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이번 여성사우회 작품 전시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 문화역사 동아리 문화유적지 탐방 ▣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문화재보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홍성문화원에서는 5월 19일 토요일에 홍성군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다.

홍성군내 문화유적지인 홍주의사충, 김좌진장군 생가지, 한용운 선생 생가지, 성삼문 사당, 결성향교, 안회당 등의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선조들의 얼과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역사동아리 문화유적탐방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닥공예인형교실 ▣

닥공예인형교실은 종이를 이용한 인형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주부님들이 정성들여서 직접 만든 작품으로 집안을 꾸밀 수도 있고, 주부님들

의 마음과 정성이 깃든 선물을 누구에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부님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다.♡



탁공예인형교실 강좌 모습

▣ 우리문화 한아름 강좌 ▣

홍성문화원에서는 5월 24일 목요일에 우리문화 한아름 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날 우리문화 한아름 강좌는 홍성군내 문화유적지로 이루어진 슬라이드를 먼저 관람한 후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였다.

평소 군내 문화유적지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던 많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번 우리문화 한아름 강좌에 참여하는 등 호응이 높았다.

홍성문화원은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역사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어 더없이 뿌듯한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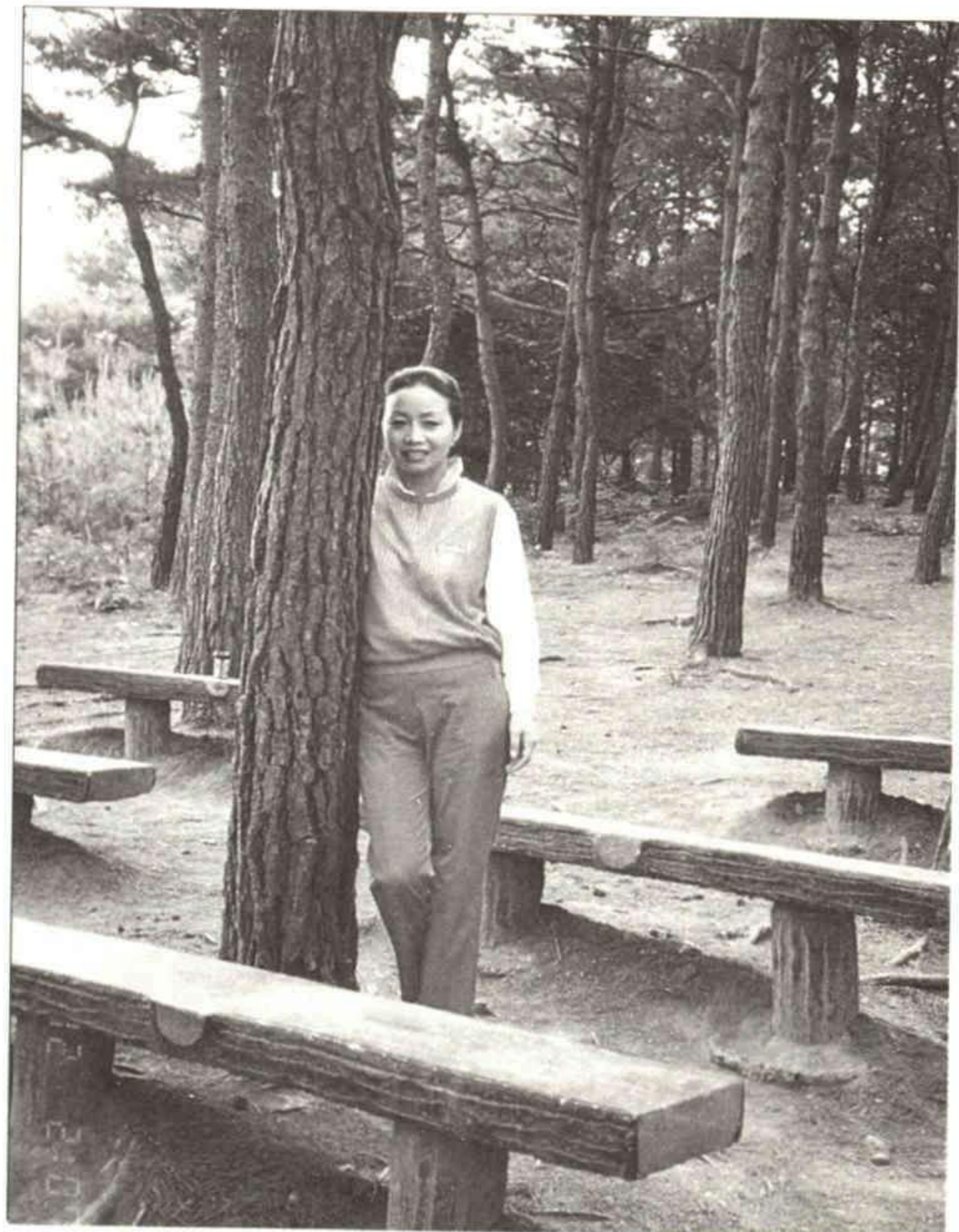
우리문화 한아름 강좌 모습

▣ 오정자씨 묵화 부문 1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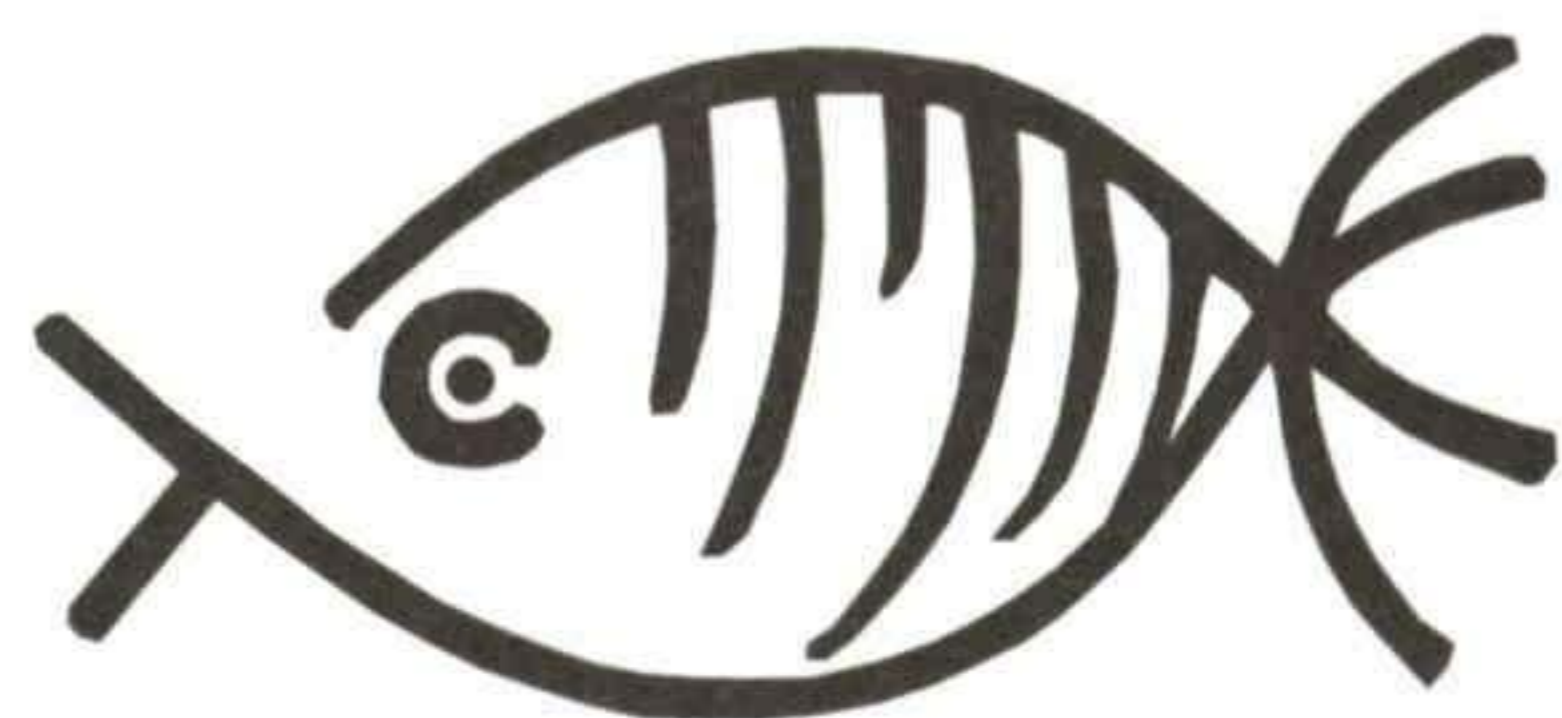
문인화가 오정자(48, 홍성문화원 회원)씨가 지난달 17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주최한 제 32회 신사임당 예능대회에서 묵화 부문 1등을 차지했다.

오정자씨는 평소에도 예술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문화 발전에 힘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묵화 부문 1등을 차지한 오정자씨



도깨비제

- 장곡면 가송리 모개울 마을 -

김 정 현

(동화작가·광동초등학교 교사)

- 조사 일자 : 1998년 11월 8일
- 조사 장소 : 충남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1구
- 제 보 자 : 김용환

(남, 70세, 장곡소학교 졸업,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1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김용환씨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마을에서 도깨비제 지내는 것을 보며 자랐다. 어른이 되어서는 직접 제관으로 도깨비제를 지내기도 했다.

- 제 보 자 : 주병환

(남, 64세, 장곡초등학교 졸업,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1구 259번지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장곡면 가송리 모개울 마을 전경

주병환씨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마을에서 도깨비제 지내는 것을 보며 자랐다. 어른이 되어서는 직접 제관으로 도깨비제를 지내기도 했다.



도깨비제의 유래를 설명하는 김용환씨와 주병환씨

1. 명칭 : 도깨비제 (또는 거리제)
2. 성격 : 도깨비
3. 당집의 위치 :

가송리 마을은 광천에서 청양쪽으로 6킬로미터쯤 가다 보면, 장곡면 소재지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왼쪽으로 있는 마을이다. 도깨비제는 마을 입구에 있는 사거리에서 지냈다. 도깨비제와 함께 용왕제도 지냈다. 용왕제는 마을 안에 있는 대동샘에서 지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우물만 남아 있다.

4. 당집의 형태 :

도깨비제를 지내는 집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도깨비제를 지내는 날 마을 안길 사거리에 가건물을 짓는다. 건물의 형태는 길다란 나무 세 개를 기둥 삼아서 비스듬하게 걸쳐 놓는다. 그 둘레에다 짚을 엮어서 빙 둘러친다. 그러면 커다란 삿갓 모양의 가건물이 만들어진다. 그 안에서 제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낸다.

5. 제의 목적 :

옛날에는 마을에 도깨비불이 많이 났었다. 그래서 마을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

6. 제일 :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지낸다. 마을에 초상이 나가거나 부정할 일이 생기면 날짜를 따로 잡아서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

도깨비제를 지낼 때는 제관을 두 명 뽑는다. 생기복덕을 보아서 부정이 없는 집에서 홀수 나이에 해당하는 남자를 뽑는다. 제관 한명은 도깨비제를 지내고, 나머지 한 명은 용왕제를 지낸다.

8. 금기 :

도깨비제를 지내는데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부정할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

제물은 일반 제사와 비슷하다. 다만 떡을 하는데 용왕제를 지내는 떡은 백무리를 놓는다.

그리고 도깨비제를 지내는 곳에서는 백무리를 하지 않고 흰 떡쌀을 버무린 벌무리 떡을 해놓는 것이 특징이다.

제의 절차는 낮에 도깨비제를 지내는 장소에 가건물을 지어 놓는다. 그리고 밤이 되면 농악을 치며 도깨비제 지내는 장소로 간다. 도깨비제를 지낼 때는 동서남북의 도깨비신을 부른다.

도깨비신은 “동방 참봉신, 서방 참봉신, 남방 참봉신, 북방 참봉신”으로 호칭한다.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도깨비신을 부른 다음에, 마을에 불이 나지 않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마을 앞에 있는 사거리의 가건물 앞에서 도깨비제를 끝내면, 다시 건너편 들판에 있는 냇가로

간다.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향해 버무려간 떡을 뿌린다. 이는 도깨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의식이다. 이렇게 하여 도깨비제는 끝이 난다.

마을 사람들이 제관 한 명과 함께 도깨비제를 지내러 사거리로 나가면, 또 다른 제관과 나머지 사람들은 마을 공동샘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샘을 깨끗하게 퍼내고 주변에 황토 흙을 놓고 금줄을 띄워 놓는다. 이는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새로 고인 깨끗한 샘물을 퍼서 도깨비제를 지낼 때 사용한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

도깨비제를 지낼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하루 전에 추렴한다. 마을에서 농악을 치며 동네를 모두 돌아다닌다. 그러면 성의껏 쌀 등을 조금씩 내놓는다. 이것으로 도깨비제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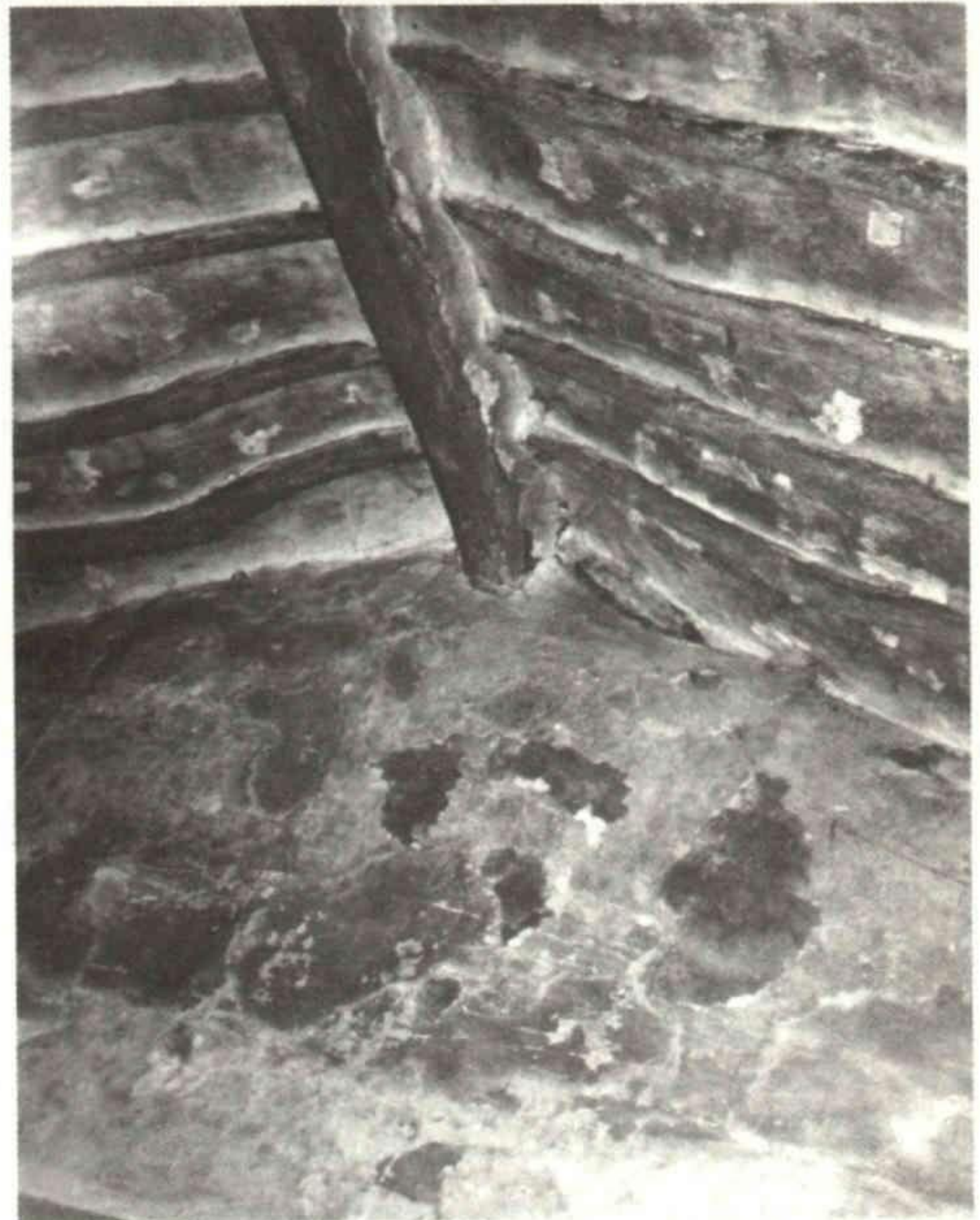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

옛날 어른들은 도깨비가 실제로 있었다는 생각으로 도깨비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다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지내오던 행사였기 때문에 지내왔다.

하지만 이 도깨비제도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은 마을에 도깨비제를 지냈다는 얘기만 전해질 뿐이다.

12. 유래 및 전설 :

도깨비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할아버지들이 어렸을때부터 도깨비제가 있었다. 전해지는 말로는 옛날에 이 마을에 불이 많이 났었다고 한다. 한 집에 불이 나서 끄고 나면 다른 집에 옮겨 붙고, 그집에 가서 불



도깨비불이 났었다는 윤선중씨댁 부엌 천장

을 끄면 또다시 다른 집으로 옮겨 붙었다고 한다. 그래서 도깨비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깨비제를 지내게 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 마을에 있는 몇몇 집들은 옛날에 불에 탄 흔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할아버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이 집들은, 부엌과 마루의 천장부분이 불에 새카맣게 타서 검은 숯처럼 남아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도깨비불의 피해를 입은 집들이 반수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옛날 집들이 대부분 없어져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직까지 개축하지 않고 남아있는 집들은,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도깨비제를 일제시대에 한 때 중단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또다시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깨비제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다가 새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현대화 바람이 불면서 도깨비제를 없앴다.☯

홍주골 내고향

지난 3월 서울에서 「해외이주, 이민 박람회」와 「해외유학, 어학박람회」가 열렸다는데 수만의 인파가 모였다고 한다.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모인 사람들의 연령층은 대개가 30~40대 초반의 우리의 엘리트 군중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국내 정치 상황이 싫어서란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재미없는 나라에서 재미 있는 나라로,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나라에서 생활여건이 부유한 나라로 가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충동에서의 집단적인 반응으로 볼수 있다.

이들에게서 맹목적인 애국심 운운한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누구들이 이렇게 젊은 이들에게 「떠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여기서 그 점은 논하고 싶지 않다. 과거 이민열풍이 있어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

돌아온 사람들의 제일성이 고향이 그리워 못 살겠더라고 하였다.

고향이 무엇인가? 고향은 어린시절 그들에게 꿈을 키워준 부모의 품속 같은 따스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이다.

홍주골 과거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심어주고 미래의 홍주골은 미래의 세계에 적응된 새롭고 영원한 꿈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인생관을 지닐 수 있는 보람된 고장 홍성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 현재의 홍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보다 강한 의욕으로 우리고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현재의 홍성군을 미래의 급변하는 세계속의 홍성에 알맞는 도시계획을 꾸준히 구성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전통적인 옛 문화유산을 더욱 부각시켜야 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먼 안목을 유지 하면서 도시 설계 향토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환경 여건을 파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것 보다 옛 자연을 깨끗이 아름답게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옛날 홍성의 인심을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옛 풍습을 알고 지켜보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 말은 내 발로 내 몸을 바로 세우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자기운명은 자기힘으로
 개척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는 아름다운 삶의 새로운 방법을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 말은 내 발로 내 몸을 바로 세우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자기운명은 자기힘으로 개척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서로 협동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스스로 돕고 서로 도와야 아름다운 고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고립은 멸망의 길이요, 서로 돕는 협동은 승리의 길인 것이다. 서로 돕고 서로 믿고 협동할 때 번영과 행복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주한 대사로 있다 간 사람이 한 말이 있다. 그는 말했다. 똑 같은 여건 속에서는 한국인을 일본인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다. 그러나 세 사람의 한국인과 세 사람의 일본인이 맞설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1:1에는 강하나 협동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올바른 목표를 향해 새롭게 변화하는 창조정신으로 협동한다면 우리고장 홍주는 영원히 발

전할 것이다. 우리의 흥성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 친목계가 우리만큼 열심히 고장도 드물게다. 그 뿐인가 동창회 없는 지역은 홍성군에서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보고 싶은 친구 선후배를 1년에 한번이라도 꼭 만나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일게다. 이토록 홍주골 내 고향은 얼키고 설킨 정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내 고장, 홍주골. 내 고향의 꿈을 피우기 위해 우리 다같이 올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 나아가야 되겠다.◆



홍주목사(洪州牧使) 이안눌(李安訥)

홍양록(洪陽錄), 호영록(湖營錄), 동악집(東岳集)의 저자

배 동 순

(홍주향토문화연구회 자문위원)

1. 약력

이안눌(李安訥), 1571년(선조 4)~1637년(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행(荇)의 증손으로 진사 형(炯)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이다. 재종숙부인 사헌부감찰 필(泌)에게 입양되었다.

이식(李植)의 종숙(從叔)이다. 18세에 진사시에 수석합격하였으나 동료들의 모함을 받자 과거 불 생각을 버리고 문학에 열중하였다. 동년 배인 권필(權鞞)과 선배인 윤근수(尹根壽), 이호민(李好閔)등과 교우를 맺었는데, 이러한 모임을 동악시단(東岳詩壇)이라고 하였다. 29세 때 다시 과거에 나아가 문과에 급제하였다. 여러 언관직(言官職)을 거쳐 예조와 이조의 정랑으로 있다가 1601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성균직강(成均直講)으로 옮겨 봉조하(奉朝賀)를 겸하였다. 공조로 옮겼다가 주시관(主試官)으로 호서와 관서에 나갔으며, 다시 예조에 들어왔다가 단천군수가 되었다. 1607년 홍주목사·동래부사를 거쳐 1610년 담양부사가 되었으며, 1년 만에 병을 이유로 돌아왔다. 3년 후에 경주부윤이 되었다가 곧 호조참의 겸 승문원부제조로 임명되었다. 동부승지에서 좌부승지가 된 뒤 사직하고 강화부사가 되었다.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치고, 인조반정으로 예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비방하는 말들이 생겨 사직하였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에 방관하였다는 이유로 귀양을 갔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사면되어 강도유수(江都留守)에 임명되었다. 1631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었으며, 다음해 예조판서 겸 예문관제

학을 거쳐 충청도도순찰사에 제수되었다. 조정에서 청렴근면한 관리를 뽑는 데 들게 되어 승정대부(崇政大夫)의 가자(加資)를 받고, 형조판서 겸 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이해(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병중의 몸을 이끌고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갔다가 환도한 뒤에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다.

2. 그가 남긴시(4,379수)

그는 특히 시작에 주력하여 문집에 4,379수라는 방대한 양의 시를 남기고 있다. 두보(杜甫)의 시를 한번이나 읽었다고 하며, 시를 지을 때 일자일구도 가벼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당시(唐詩)에 능하여 이태백에 비유되었고, 글씨도 잘 썼다. 정철(鄭澈)의 〈사미인곡〉을 듣고 지은 〈문가(聞歌)〉가 특히 절창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홍양록·호서록에는 충청도 각현의 관아시가 수록되었다.

3. 「동래사월십오일(東來四月十五日)」시

국난을 형상화시킨 장편시로서 왜적이 동래에 쳐들어 왔을 때 관민이 함께 막으려다 장렬하게 전사한 사연을 담고 있다.

그의 시 〈4월 15일〉은 오언고시로서, 그가 동래부사 재직시에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당시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는 문장에는 비교적 힘을 쓰지 않았고 주로 시에 전념하여 한때는 자신의 호를 따서 동악시단을 형성, 그 중심인물로 문학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4. 교유했던 시인들

함께 교유했던 인물로는 권필(權驥), 이호민(李好閔), 홍서봉(洪瑞鳳), 이정구(李廷龜)등으로

이 책에도 이들과 수작(酬酢)하였던 시편이 많이 실려있다.

5. 각 지방의 생활사적 사료로서의 시적 가치

그의 시는 고답적 표현을 버리고 절실한 주제를 기발한 시상으로 표현한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의 문집에 실린 시는 자신이 옮겨 다닌 고장을 중심으로 묶여 있어서 그 지방의 민중생활사 및 사회사적 자료를 담고 있으며, 특히 그의 생애가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양란에 걸쳐 있으므로 국난에 피폐해진 당시의 상황을 추적하여 볼 수 있다.

또한, 명나라로 사행가면서 지은 그의 시에서는 대명교섭사(對明交涉史)의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6. 동악시단(東岳詩壇)

조선 중기의 문인 이안눌(李安訥)이 중심이 되어 당대의 명사들과 시모임을 가지던 장소 혹은 시회(詩會).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경내이다. 이에 관한 기록이 이안눌의 후손인 석의 《동강유고(桐江遺稿)》에 실려 있는 〈동원기(東園記)〉에 있다.

이에 의하면 이곳에서 당시의 대표적인 시인들과 시를 짓고 풍악을 즐기면서 놀던 다락을 ‘시루(詩樓)’라 하였고, 그 단을 ‘시단’이라 불렀다 한다.

7. 제향된 곳

승록대부의정부좌찬성 겸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에 추증되었다. 담양의 구산서원(龜山書院)과 면천의 향사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저서로는 《동악집》 26권이 있다.◆

은봉산(銀鳳山)

- 서부면(西部面) 상황리(上黃里) 먹자울 -

구 제 기

(시인·결성공고 교사)

서부면(西部面) 상황리(上黃里)는 백제때 결기군(結己郡)에 속했다. 신라 때에는 결성현(潔城縣)에 속했으며, 고려 때에는 결성현(結城縣)에 속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초기에 결성현(結城縣)에 속했다가 말엽인 고종 32년(1895)엔 결성군 상서면(上西面)의 지역으로서 느리실 위쪽이 됨으로 위느리실, 또는 상황곡(上黃谷)이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에 후동(後洞), 상황리(上黃里), 동동(東東), 하황리(下黃里) 일부를 병합하여 상황리(上黃里)라 해서 홍성군 서부면(西部面)에 편입하였다.

이곳에는 느리실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황곡(黃谷)이라 부르기도 한다. 골짜기가 깊고 넓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앞들이 기름져서, 가을이면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이 온통 황금물결을 이룬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추정된

다. 처음에는 누리실이라 불리다가 느리실로 불리는 듯하다. 느리실 서쪽 마을의 이름은 당마루. 바닷가에 신당(神堂)이 있음으로 해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옛날부터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갈 때에는 이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출항하곤 하였다 한다. 느리실 북쪽의 마을 이름은 뒷골이라 한다. 마을의 뒤에 있다 하여 후동(後洞)이라 불리기도 한다. 뒷골 북쪽 마을의 이름은 장재울이다. 옛날부터 장자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마을이라고 해서 불리우는 이름이다. 당마루 서쪽 마을의 이름은 뒤킵이다. 은봉산(銀鳳山) 아래에 자리한 마을로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부면의 주산(主山)인 우심산(牛心山)의 줄기가 여기에 와서는 평평한 야산으로 이어져 바닷가에 와서 꺾였기 때문에 뒤킵의 깎이라 하여 메깎이라 부른다. 옛날에는 명당자리가 있다 해

무서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경외스러움같은 것이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숲은 계속되고 어둠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점점 외경스러움이 엄습해오고 있었다

서 많은 지관들이 드나들었다 하는데 아직껏 그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다. 이곳 명당자리에 묘를 쓰면 장자가 나와서 천하의 부호가 나온다 해서 옛날부터 널리 소문난 곳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밭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7·8호가 마을을 이루고 있다. 메갓의 남쪽 마을은 위느리실, 또는 상황곡(上黃谷)이라 하거니와 이는 느리실 위쪽에 잇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위느리실 남쪽으로 은봉산(銀鳳山)이라 불리는 산이 있으니, 이 산에 얽힌 이야기는 머언 옛날부터 다음과 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고? 무슨 놈의 꿈이 이리도 밤마다 계속된다는 말인가?”

마을의 어른이신 김영감은 오늘도 식전잠에서 깨어나 긴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을 하였다.

“아무래도 이것은 부처님의 계시임에 틀림없어! 이를 어찌한담?”

김영감은 입에 힘을 가하여 담배를 빨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 속의 연기를 내뿜었다. 길게 내뿜어진 연기 줄기가 넓은 방안으로 고리를 이루며 퍼져 나갔다. 그것을 바라보며 김영감은

문득 부처님의 머리 뒤에 있는 광배(光背)를 떠올렸다.

“이는 부처님의 계시야! 틀림없어! 암 그렇고 말고!”

김영감은 마을 최고의 어른이었다. 마을의 굵은 일은 물론이려니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있어서 김영감의 의견은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특히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마을 사람들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겼을 때는 김영감이 의견을 제시하여 해결하곤 하였다. 그런 김영감에게 벌써 몇 일째 같은 꿈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김영감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깊은 산 속을 걷고 있을 때였다. 분명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숲속은 캄캄하였다. 김영감은 점점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문득 두려움을 느꼈다. 무서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경외스러움같은 것이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숲은 계속되고 어둠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점점 외경스러움이 엄습해오고 있었다. 순간 그는 두

눈을 부비지 않을 수 없었다. 어둠의 저쪽 큰 키의 나무가지 사이에서 풀어놓은 비단자락처럼 내리비치는 빗줄기 하나! 둘! 셋! 넷!..... 놀랄 만큼 눈부신 빗줄기가 김영감의 앞에 쏟아지고 있었다.

“아! 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엇인가를 김영감에게 내밀고 계신 것이었다. 그리고 낮으막한 목소리로 김영감에 속삭였다.

“이 사리(舍利)를 받으라, 어서!. 이리 가까이 와서 사리를 받으라니까!”

김영감은 그러나 차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

부처님께서 선택해주신 마을! 그런데도 마을 스스로 선택을 포기한 마을! 그러나 부처님은 여전히 마을을 굽어살피시며 봉황을 보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고 있으니, 이 마을은 결국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마을이 분명한 것이다

김영감은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자신도 모르게 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그 빗줄기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산울림처럼 울려 퍼지면서 김영감의 들레를 빙빙 돌고 있는 빗줄기를 보았다. 김영감은 경외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인가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흡사 신(神)앞에서 온 정성을 다하여 빌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김영감은 주위의 조용함에 슬그머니 두 눈을 떴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몇 가닥의 빗줄기가 내려 쏟아지던 숲 속 밖으로 바닷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출렁이는 물결위로 빗줄기가 한데 모여져 연꽃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꽃 한가운데에 부처님 같은 분이 한 손에 꽃 한 송이를

다. 경외스러움은 이미 온갖 두려움으로만 다가왔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아아! 차마 움직일 수 없는 두려움이어!

“어허, 시간이 없는데, 어찌 머뭇거리기만 하고 다가오지 않는고?”

“몸이 움직여주지 아니하옵니다. 어찌하오리까?”

“어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고?”

문득 연꽃이 서서히 닫히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빗덩이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김영감은 정신없이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온 몸으로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김영감으로 하여금 부르르 떨게 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크게 소리쳐 불렀다. 무엇인가 애타게 부르는 안타까운 소리가 분명하였다. 김영감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있을 때였다.

김영감은 결국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몇 일째로 계속되어온 꿈을 이야기하였다.

“아무래도 내 생각으로는 부처님이 분명해! 이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우리 마을에 절을 세우라는 계시임에 틀림없어!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사리를 받으라고 하시면 받아 모실 거야! 그러하거니 우리 마을에서는 절을 세울 준비를 하도록!”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자못 놀라기도 하였으나, 차츰 서로가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이게 웬 일이야, 부처님이 나타나시다니?”

“마을에 경사스러운 일이지! 우리 마을을 부처님이 선택하신 거야!”

마을 사람들은 곧 절을 세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절을 세울 부지를 마련하는가 하면 숲의 곁은 나무를 베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김영감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부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지를 아니한 것이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부처님은 나타나지 아니 하였다. 김영감은 답답했다. 그러나 답답하기는 마을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몇 날 몇 일을 기다리는 동안 계절이 바뀌고, 우거진 숲 속에도, 낙엽이 가득 쌓였다. 그러나 김영감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마을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다.

“혹시 부처님이 우리 마을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결국 부처님은 다시 김영감님의 꿈속에 다시 나타나셨다. 계절이 또한 바뀌어 하얀 눈이 온 누리를 덮고 있을 때였다. 부처님은 그 숲 속의 어둠을 빛줄기로 밝히고서 김영감 앞에 나타나신 것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손에는 꽃 한 송이만 들려 있을 뿐 사리를 지니지는 아니하셨다.

부처님은 예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씀

하셨다.

“너의 두려움이 결국 사리를 받을 수 없게 하였구나! 사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가져갔으니, 절 세우는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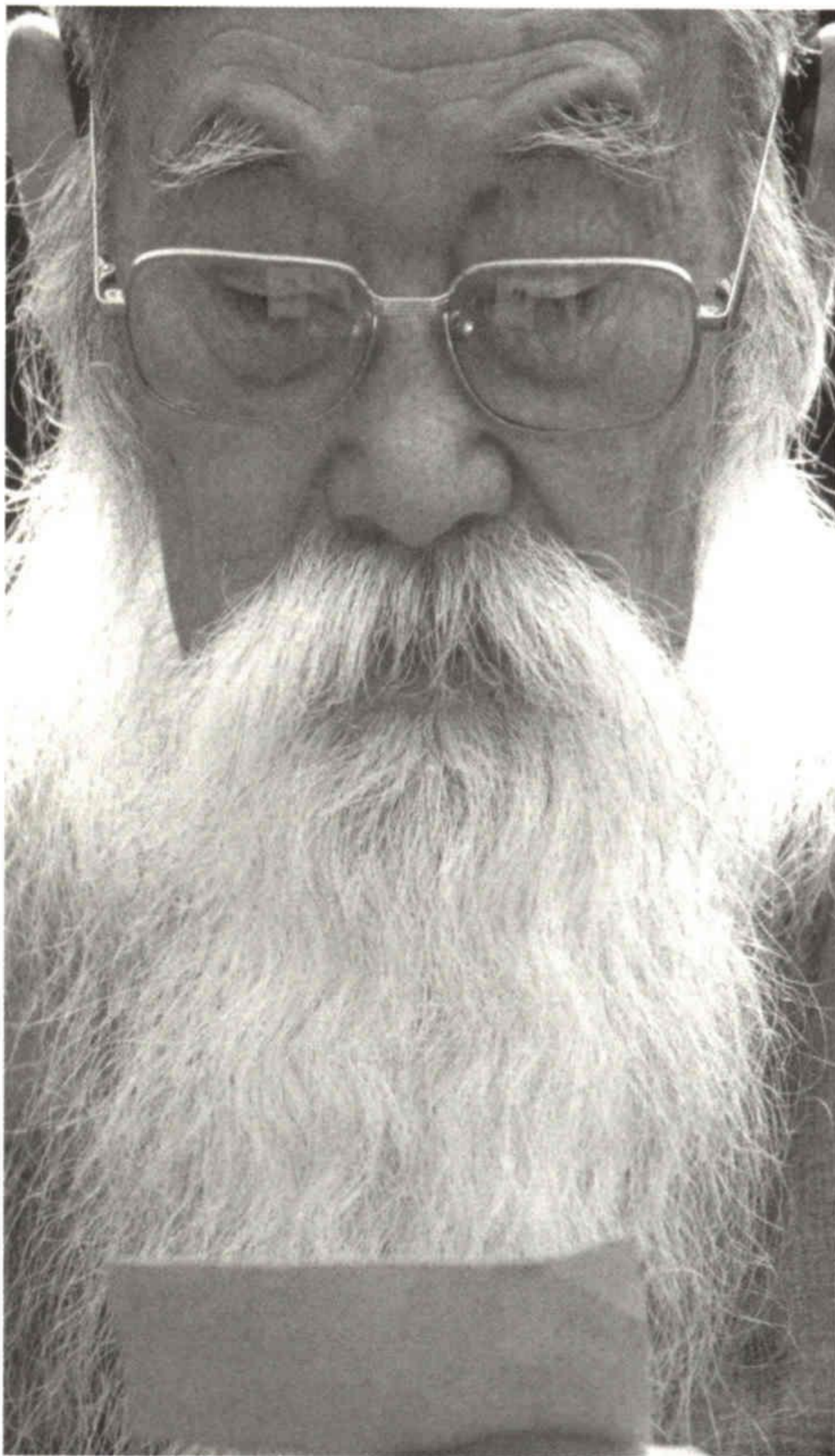
김영감이 ‘사리를 주십사!’ 하고 몇 번 말씀드렸으나, 부처님은 소리도 빛도 없이 김영감의 꿈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김영감은 곧 마을사람들에게 사리를 다른 마을에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절 세우는 일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쓸어내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짙은 가을날. 마을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한 새 한 마리가 마을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온 몸을 온통 은빛으로 단장한 비둘기 한 마리! 그것은 여느 비둘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비둘기가 부처님이 마을을 위하여 보내주신 새로 여기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보살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은빛 비둘기가 어디론지 날아가 버렸다. 그 대신 겨울밤마다 전에 듣지 못한 새 울음소리가 마을의 뒷산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마을 가득히 채워주었다. 그 울음소리는 매우 특이하였다. 어찌면 부엉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소쩍새 울음소리 같기도 하였으나, 분명한 것은 소쩍새도 아니요, 부엉이도 아닌 전혀 낯선 새 울음소리였다. 그러나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새 울음소리는 봉황(鳳凰)의 울음소리라고 말하였다. 은비둘기가 봉황으로 변하여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선택해주신 마을! 그런데도 마을 스스로 선택을 포기한 마을! 그러나 부처님은 여전히 마을을 굽어살피시며 봉황을 보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고 있으니, 이 마을은 결국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마을이 분명한 것이다.♣

사진가가 되는 길

강 태 훈

(해전대 교수, 사진가)



기사와 예술가

서양 중세를 상징하는 것은 역시 기사(knight)이다. 게르만 침략의 혼란기를 지나 기독교 정신과 게르만 정신이 융합되어 나타난 것이 기사도이다. 기사도는 이후 근대까지 서양인의 정신을 지배해 왔다. 중세 이후 기사가 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보통 일곱 살이면 부모를 떠나 기사의 잔 시부름을 하며 기사정신을 습득하다가 열 네 살이 되면 견습기사로 교육받고 스물 한 살이면 영주로부터 기사의 칭호를 받는다. 힘든 수련의 과정이었으므로 신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만큼 명예로운 지위로 인정받았다.

달타냥, 원탁의 기사, 윌리엄 텔, 동키호테 등 서양근대문학에서 기사를 다룬 것이 많은 것은 그만큼 서양인들에겐 기사정신이 보편적인 가치관이었던 것이다.

기사가 되려면 기나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한철우 『회상』 (2000.보령전국사진공모전 금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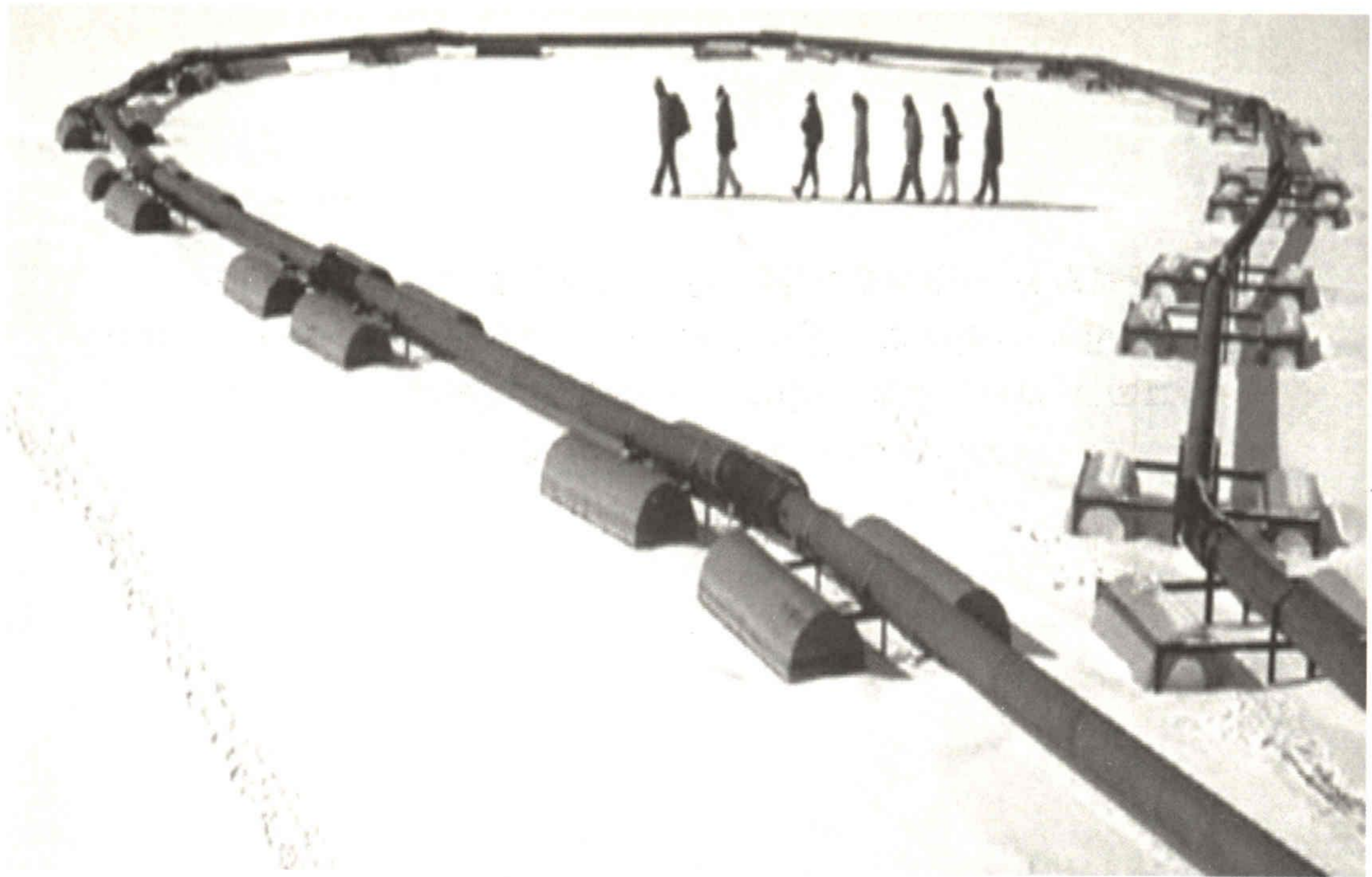


박만순 「상념」 (2000.정음전국사진공모전 은상작)

예술가가 되는 길도 멀고 험난하다. 시인이 되려면 흔히 일간신문의 신춘문예로 등단하게 되는 데 보통 수십 대 일이나 수백 대 일의 관문을 뚫어야만 한다. 그렇게 힘든 경쟁을 거쳐서 시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인들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고 또 존경해야 한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이름 없는 잡지로 추천받아 등단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다. 그저 이름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발행하듯 시인을 양산하는 곳도 있기는 하다고 한다.

서예가가 되는 길도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국전과 같은 공모전에서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금상을 수십 명 씩 쏟아내는 무명 장사꾼들의 공모전도 있어서 상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치원 상장 뿌리듯 하는 곳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 실력있는 시인이나 서예가, 화가는 차라리 들판에 남아 있을지언정 이런 곳을 기웃거리지는 않는다.

사진작가가 되는 길은 좀 더 특별하다. 우선 이름부터 음악가, 미술가, 조각가 하듯이 사진가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사진작가라고 호칭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진단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진가는 마치 사진사의 동의어처럼 인식한 많은 사진인들의 그릇된 인식의 결과이다. 사진가 하면 사진사처럼 생각하고, 사진작가하면 무슨 큰 예술가나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초기 사진인들의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인 셈이다.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은 사진예술에 대한 당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굳이 자신을 사진가라고 호칭한다.



신용식 『굴레』 (2000.충주전국사진공모전 동상작)

검증의 과정

어쨌든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되어 협회에 가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협회주관의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적어도 25회 이상은 입선 이상의 입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도 처음 입상일부터 4년이 경과되어야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작가로 등록 될 수 있다. 보통의 공모전이 약 십대 일의 경쟁인 점을 생각하면 그리 쉬운 일 만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진 애호가들은 수많은 공모전에 「지쳐서」 사진을 포기한다. 힘들게 사진작가가 되어도 이제는 객관적인 공모전의 시각에 익숙해져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찾지 못하고 예술적 열정이 식어버리곤 한다. 공모전에 길들여지다 보니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다.

예술가가 되는 길이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쟁을 통하지 않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무수히 많다. 다만 예술이란 객관적으로 감상자의 냉엄한 비판 위에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경쟁이라는 훈련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충실하려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자신의 보다 주관적인 예술정신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공개 경쟁에 익숙해 지다 보면 어느새 보편적 기준에만 적응하는 한계에 갇혀 버리고 만다. 때문에 예술에 있어서 공개 경쟁의 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여겨야 한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인재를 등용하는 아주 객관적인 선발의 방법이었으나 그 폐해도 만만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시험이라는 것이 모범 답안을 찾아내는 일이므로 선비들은 새로운 학문을 시도

**지방문화는 지방예술가들의 창조적 활동을 토대로 발전한다
때문에 지방의 예술애호가들은 홍성에서 활동하는 시인, 화가, 서예가
그리고 사진가들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지방예술이 꽃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기존의 경서 암송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조선시대의 유학은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문의 쇠퇴를 가져왔던 것이다.

홍성에도 여러 예술분야에서 검증과정을 거친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다. 이들은 홍성 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사진예술분야 역시 홍성에는 훌륭한 사진작가들이 여럿 배출되고 있다. 이들은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불모지였던 홍성의 사진예술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청량한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는 젊은 사진가들이 앞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성숙한 사진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빵만으로 살수 없다」

지방문화는 지방예술가들의 창조적 활동을 토대로 발전한다. 때문에 지방의 예술애호가들은 홍성에서 활동하는 시인, 화가, 서예가 그리고 사진가들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지방예술이 꽃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성지역에 사진예술이 발달하려면 사진가들의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높아져야 한다. 사진이라면 그저 기념사진이나 증명사진 정도로만 인식해서는 아니된다. 생활기록사진이 있듯이 예술로서의 사진도 존중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진을 보고 그림 같다거나 멋진 그림을 보고 사진같다거나 하는 실례되는 표현으로 사진가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의 소설가 두진제프의 소설 중에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제목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빵 이외에도 학문, 자유, 여행, 오락, 예술, 사회헌신과 같은 가치로운 일들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아름다운 홍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고 예술가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것이다.♠

결성농요의 상쇠 이종완님을 찾아서

권 기 복

(홍주중학교 교사)

풍물과 결혼한 인생

- 여보세요. 이종완 선생님이세요?
- = 예.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 지금 결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잠시 시간 있으시면 찾아 뵙고자 합니다.
- = 시간이야 있지만, 저를 찾아오실 일이 있으십니까?

조금은 가냘프고 의구심이 담긴 듯한 목소리였다. <홍성문화>의 원고 취재 차 찾아 뵙고 싶다는 사유를 듣고, 이 선생님은 취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서 극구 사양을 했다. 나는 이미 결성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으며, 부담 없는 내용이니 만큼 어려워하실 것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집에서 늦은 아침에 출발하기도 하였지만, 다

른 곳을 들려서 가던 길이라서 이미 점심때가 지나고 있었다. 아내와 막내녀석이 함께 동행하던 길이라서, 근동에서는 제법 유명한 <결성칼국수> 집에 먼저 들어갔다. 칼국수를 시켜놓고서 수소문을 해보니, 역시 좁은 마을이라서 그런지 옆 가게에서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깡마른 체구에 늙수그레하여 금방 ‘저 분이 인생을 편하게 사시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눈치하고는 거리가 먼 필자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비록 쇠약해 가는 시골 면소재지일 망정 구멍가게라도 갖고 계시면 생활에 큰 쪼들림은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고, <홍성문화> 2001년 봄호를 드렸다. 칼국수라도 함께 드시자고 하였더니, 결성초등학교 아이들 풍물 지도를 하시고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드셨다고 하였다.



결성초등학교 아이들과 풍물대회장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찾아뵈었다. 가게 안에서 파리채로 파리를 쫓아내던 이 선생님과 촌로 두 분이 좁은 공간에 놓인 의자에 앉아 계셨다.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파리채를 내려놓고는 앞장 서서 가게를 나섰다.

= 학교로 가시죠.

- 예. 그러시죠.

당신을 찾아온 손님이니, 다방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라는 말씀을 귓전에 흘리며 결성초등학교를 향했다. 그 길은 면사무소 정문을 오른쪽으로 비켜가면서 곧 학교의 입구가 시작되었다. 서른 남짓한 발걸음을 옮기자, 왼편에는 결성 아문(衙門)과 동헌 채가 보였다. 은행나무 숲길을 따라 오른 쪽으로 휘어져 땀 걸음 더 가니, 학교 정문이 나왔다. 정문의 왼편에 둘러앉은 아름드리 벚나무를 보아도 이 학교의 역사와 유서 깊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덩이로 나누어진 작은 건물을 지나니 제법 널찍한 운동장이 나왔다. 운동장 오른쪽에서너 아름드리는 죽히 될 은행나무 그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풍물지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 제가 1983년 6월에 결성에 와서 풍물지도를

하면서 정착하였으니, 벌써 18년이 지났는가 보네요.

- 그럼, 이 곳이 고향이 아닌가요?

= 예. 고향은 공주 중학동입니다.

- 어찌다가 이 곳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 말씀 드리자면 하영(한) 없지요. 공주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에 악기를 다루는 것이 좋아서 밴드부에 들었다가, 백제 문화제 행사 중에 장구 소리에 미쳐서 장구를 만지게 되었지요. 그 때가 5·16혁명이 나던 해였는데, 풍물을 배우고 싶다는 일념에 중학교도 중도 포기하고 서울로 무작정 가출을 하였어요. 장구를 배울 수만 있으면, 그 어떤 남사당패나 걸립패를 마다하지 않고 쫓아다녔지요. 그러면서 쇠(뽕과리)도 배우고, 북이며 징이며 가리지 않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24살 먹던 해에는 서울 정릉에서 걸립패의 정식 단원이 되어서 6~7년간 전국을 유랑하며 살았습죠. 그러나 TV가 안방을 차지하면서부터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 그랬었군요. 그래도 그 시절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실 텐데…….

= 그럼요. 그 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죠.

그 때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취재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관성이 적어서 다음에 한번 모시고 밤 새워 듣기로 마음먹고 이야기를 돌렸다.

- 그럼 언제부터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나요?

= 1972년 서산 서령중학교에서 농악을 창설하겠다고 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덩달아서 이웃에 있는 부춘초등학교도 농악을 지도하였지요. 그 때부터 보령 한내초등학교, 예산 삼교초등학교, 서천 장항초등학교

**현실 생활에 대해서는 올려다보지 않고, 내려다보며
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농악을 하고, 부모님들이 호응을
하여 주실 때에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에서 지도하고, 홍성에서도 장곡, 금마, 갈산, 서부, 은하 초·중학교에서 지도하다가 결성에 인연을 맺은 뒤로는 이 곳에서 아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난 30년 간 충남 서부지역의 농악 지도에 관해서는 산증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 가족은 무슨……. 이 몸뚱이 하나 뿐입니다. 대천(현재의 보령시 중심부)에 있을 때, 결혼했다가 금방 실패한 이후에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고향인 공주에도 친지들이 모두 떠나서 없고, 여동생 둘이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악과 결혼했고, 2세 지도를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농악 지도의 산증인

- 현재 결성초등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 지금 3학년 어린이부터 32명이 풍물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생 중에서 3분의 1에 속하고 있으며, 3~6학년 어린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농악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 1998년인가, 도대회에서 풍물부문 은상을 받고, 사물놀이는 동상을 수상하였지요. 군대회는 매년 금상을 받아 왔구요.

-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규모가 적은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실 텐데…….
- = 정말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어서 제일 아쉽죠. 오죽하면 저도 큰 학교에서 지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 보수는 좀 어떠하십니까?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지도하시는 차원이라면 생활을 유지하시기에 뻘한 실정일 텐데…….
- = 보수의 많고 적음에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삽니다. 욕심부리다 보면 뒤 탈나고, 짜증밖에 더 나지 않겠습니까? 현실 생활에 대해서는 올려다보지 않고, 내려다보며 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농악을 하고, 부모님들이 호응을 하여 주실 때에는 정말

-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부모님들이 방과후에 농악보다는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더 시키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농악이 학교마다 큰 인기를 받으며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남다른 감회를 받지 않으시는지요?
 - = 물론 기분 좋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농악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대회용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 건강은 어떠십니까?

- 홀몸이시라서 은근히 노후가 걱정되는데, 대책을 마련해 둔 것은 있는지요?
 - = 몇 푼 안되지만, 조금씩 예금해 둔 것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노후설계야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그럼요. 선생님처럼 온 몸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야말로, 그 정신이 화려한 불꽃이겠지요. 오늘 훌륭한 분을 뵈게 되어 저도 기쁨을 느낍니다. 모쪼록 강녕하시길 바랍니다.
- 일요일 오전에도 쉬지 않고 풍물지도한 아이

**그 분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우리 가락이 가득 담긴 가슴이
거대한 자산임을 알 수 있었다**

- = 아직은 좋은 편입니다. 술을 아주 즐겼는데, 수전증도 심해지고 약해진 것 같아서 금주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 이곳은 <결성 농요>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한데, 이 선생님은 말씀하신 일이 없으신가요?
- = 현재까지 상쇠 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역을 맡고 있다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들 중 운동장에 남아있던 서너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한 방 찍고, 은행나무 아래 닭장 같은 집(이 선생님의 거처)에서 가져다주신 사진 한 장을 받아들고 자리를 일어섰다. 구멍가게라도 운영하는 줄 알았던 그 분은 가게는커녕 한 몸을 편히 널만한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분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우리 가락이 가득 담긴 가슴이 거대한 자산임을 알 수 있었다.♠



영상미디어 미술의 혼란과 잃어버린 정체성

이 재 수

(한국미술협회 회원 · 한남대 강사)

미술가들은 끊임없는 실험을 준비한다. 작은 실험의 불씨를 거머쥐고 더 큰 빛을 찾아 헤맨다. 이러한 실험 정신은 곧 창작의 모태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이 찾아내는 빛들은 때로는 도발적인 위협, 아슬아슬한 스틸, 번뜩이는 재치를 보이기도 한다. 미술가들에게 실험정신은 곧 삶이다.

요즘 큰 도시의 화랑가는 가지런하게 걸려 있는 그림들이 저마다 고른 숨을 내쉬며 감상자를 반기던 전시장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화랑가에 다녀온 뒤 전자상가나 라스베가스와의 환락의 도시를 다녀온 듯한 의아한 궁금증을 안고 돌아오는 일이 잦다고 한다. 어쩌다 회화작품을 전시한 화랑에 들릴 때면,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을 만나는 듯한 반가움마저 들 정도라고 한다. 미술전문지는 언제나 이국적이거나 낯선 작품을 보여주는 일만이 새로운 예술경향을 소개하는 듯한 착각을 하며 허접한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젊은 미술가들 가운데 영상, 미디어 작가들이 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영상매체의 선호 현상이 높아 보이고, 불과 몇 해 사이에 한국미술계는 영상예술계(?)로 변신을 꾀한 것처럼 보인다. 어찌 보면 이런 현상들은 실험정신이 강한 한국의 미술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장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젠 폭넓은 영상미디어 미술 작가군이라기 보다는 무분별하게 떠도는 오합지졸이라고 잘라 말하고 싶다.

먼저 영상미디어 관련 미술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술 전체의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미술이란 지난날처럼 미술과 비미술의 구분이 없어지고, 장르의 구별도 모호한 상태이다.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에 미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일은 우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광범위하고 그것을 모두 이야기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리라고 보인다.

우리 나라 작가들에게 영상미디어 미술은 아마도 백남준이라는 세계적인 거장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한국의 영상

미디어 관련 작가들이 백남준 명성을 덤으로 얻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백남준이라는 거장 덕분에 덤으로 얻는 이미지들이 후배작가들 작품의 질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최근 국내미술계에서 붐이 일어나듯 화려하게 소개되고 있는 영상미디어 관련 미술은 작가들의 사유체계를 제대로 엮어내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작품들이 속을 들여다보면 굵은 대나무 통처럼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비디오나 컴퓨터를 표현 매체로 수용하여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충실한 미술전문교육을 받는 자들이 많다. 행여 미술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이 실험적으로 영상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인정하려 하지 않는 미술계 생리상 미술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은 틀림없다. 혹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매체로 실험하는 일이 곧 앞서가는 작업관인양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영상기술이나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매체, 새로운 기법,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실제 국내 미술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상미디어 관련 작가들만 보아도 한 두 명을 빼면 혀를 끌끌 찡 정도로 어설픈 논조들이 많다.

전시장에 TV브라운관이나 컴퓨터 모니터 또는 카메라로 작업한 내용물만 갖다 놓으면 “영상”이라는 말머리가 붙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작가로 불려지고 싶은 이유라면 이제 그만 막을 내렸으면 좋겠다. 새롭지도 않은 매체에 대한 서툰 대응이 시대를 앞서가는 작업관이라 할 수 있을까. 표현 매체의 가뭄 끝에 불어오는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오는 산들바람인지 지나간 폭풍의 잔바람인지도 간파하지 못한 채, 그저 신선하다는 어설픈 논리는 접어야 한다. 영상미디어 관련 작가들

은 작품을 내보이기 이전에 진실된 자세로 미디어 소통특성에 대한 문제부터 챙겨야겠다.



백남준 「untitled」 (이 작품은 본문 내용과 관계없음)

영상미디어 미술의 소통 특성은 시간성, 공간성, 인간정체성과 정신, 미술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이는 영상 미디어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소통의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회화나 행위미술, 설치미술 등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문제들이다. 물론 3차원 공간을 2차원공간에 끌어들이는 방법적인 문제에 차이가 있지만, 인간 감성을 움직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창작은 별반 차이가 없다. 여기서 “시간성”은 모더니티, 또는 역사나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즉 목적을 가진 직선의 시간, 목적 없는 직선의 시간, 원적인 시간, 파동으로서의 시간, 나선으로서의 시간, 실체가 없는 관념으로서의 시간 등 많은 시간관이 있다. 이러한 시간관은 철학이나 종교, 물리학, 역사 등등의 많

**“인간정체성과 인간정신”은 크게는 인류의 정체성 뿐 아니라,
작가 개인의 정체성 문제에 관한 연구를 밀줄기로 삼아야 한다**

은 분야가 함께 어울려야 한다. “공간성”은 우주공간에 대비한 지구공간의 특수성, 보편성, 그리고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 창출을 말하는데, 리얼리티와 이미지 등의 여러 공간 문제들 또한 물리학이나 천문학 등등의 많은 학문을 필요로 한다.

“인간정체성과 인간정신”은 크게는 인류의 정체성 뿐 아니라, 작가 개인의 정체성 문제에 관한 연구를 밀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정신의 구조와 메커니즘과 같은 실체에 대한 규명도 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미술의 목적이나 방법은 시간성, 공간성, 정체성 등을 포괄하여 사유체계를 엮어 의미를 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영상미디어 관련 작가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뒷전에 두고 창작 아닌 창작품을 내뱉고 있는 실정이다. 영상미디어 관련 미술은 작가 작업성향에 따라 여러 갈래로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대체로 개념 인식을 저버린 작업들이라는 데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작가가 사유의 체계를 엮어내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간편성과 유행을 바라는 데에서 나온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근거 없는 미술용어를 의미 없이 갖다 붙이는 데도 영상미디어 미술 분야가 한 몫을 더하고 있다. 요즘 사이버문화 창출로 인하여 미술인들이 가져다 쓰는 용어들을 보면 기가 찰 정도로 미술용어 생성에 관심이 많은 듯 하다. 많은 작가들이 아무런 개념 없이 “사이버아트,

넷아트, 컴퓨터아트, 디지털 아트, 인터넷 미술” 등을 써먹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용어들은 미술장르나 창작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혹 관련이 있다면 미술인이 인터넷 소통특성을 이용하여 미술활동(홍보 및 가상전시)을 펼치는 일이나 웹(www)기반에 필요한 작업들과 연관시킬 수는 있지만, 작업성향에 따른 미술장르와는 전혀 아귀가 맞지 않다. 또한 어느 구석에서도 그 용어 생성에 관한 설득력을 발견할 수 없다.

작가들은 언제나 고민이다. 그러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유행으로 해결하려는 어쭙지 않는 사고를 버렸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질서 정연한 교차길보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아 올 수 없는 일방통행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뼈뚫어진 인식부터 고쳐 잡아야겠다.

불거리들이 넘쳐나 눈이 빠질 지경인 요즘 세상에 여전히 불거리가 있다는 일은 흥미진진하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창작품들을 눈여겨본다는 일은 특정한 존재에 대한 관심이다. 비록 오류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해 쓴웃음을 자아내는 결과일지언정, 하나의 현상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위안을 삼는다. 우리의 영상미디어 관련 미술이 미술계에서 알찬 모습으로 재편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정정합니다.

[봄호에 실린 미술에세이 제목 「지역미술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무덤과 미술」로 정정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세포의 원동력

세포는 한 생명체의 기본단위다.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다시 기관이 된다. 간, 심장, 눈, 코 등이다. 그리고 기관이 모여 한 생명체를 구성한다. 생명체는 세포덩어리인 신체(몸)를 가지고 있고, 정신력이라는 불가사의한 신비한 힘을 가진다.

정신은 흔히 마음이라 표현되고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 외에는 외부영향에 대한 ‘반응’ 내지 반사작용이라 일컬어지고 동물이라는 범주에 집어넣어 형이하학적 존재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사람은 형이상학적 존재로서 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지배하는 영혼이라는 상위개념을 가진 존재로서 정의된다. 즉 신(神)적 존재이다.

사람은 개개인이 ‘하나님’이라 불려지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창조된 존재의 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품에 영원히 안겨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유인 것이다.

세포는 정신 내지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공기층을 울려서 고막에 도달한 소리가 생명에너지로 바뀌어 ‘영혼’에 들어가면 세포는 변화된다. 사랑의 에너지가 세포에 ‘번개’ 같은 충격을 안기는 것이다. 소위 이상구 닥터가 말하는 “찌지직” 이론인 것이다.

참으로, 두뇌세포는 사랑을 먹고 산다. 고급 영양분과 비타민을 아무리 잘 먹어도 부정적 생각과 나쁜 맘을 먹으면 두뇌세포는 굶주리게 된다. “나이 서른이 넘으면 네 얼굴에 책임져라”라는 말이 있다.

사랑을 먹은 두뇌세포는 각종 호르몬과 세포활성물질(엔돌핀도 포함)을 만들어 내서 온몸의 세포에

전달한다. 얼굴의 모든 표정이 두뇌의 의식작용과 잠겨있는 무의식의 큰 창고에서 끌어내 온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영혼이 밝게 웃으면 얼굴도 천사처럼 웃고 영혼이 슬퍼하면 얼굴도 천사의 동정심을 자아내게 하는 슬픈 빛을 띄우는 것이다.

세포 하나 하나는 분명 살아있는 영혼이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등으로 구성된 DNA 유전자 물질의 조합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능력과 우주의 존재이유를 사유하는 정신적, 영혼적 실체인 것이다.

아기가 젖을 빨다. 엄마는 젖을 물리고 행복해한다. 아기는 사랑을 먹는 것이다. 고아원에서 영아의 사망률과 유모의 간호관계를 통계 낸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뽀뽀를 받는 많은 고아 아기들은 잘 자랐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룹의 아기들은 두배에서 열배까지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다른 요소들(위생적 간호, 우유의 적절한 배합, 기저귀의 수시 교체 등)이 있겠지만 이 논문의 주안점은 사랑의 스킨십(피부접촉)과 영혼의 창인 눈동자와 눈동자의 빛의 교환이 생명력을 좌우한다는 교훈을 담아내고 있었다.

세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은 돼지처럼 잘만 먹이면 되는가? 분명 답은 말한다.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는 세포의 단백질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다.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나방이 나비가 되듯 새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이다. 그렇지 않나요?!♣

김 용 신

(수필가·감내과의원 원장)

스승의 날



김 영 희
(금마초등학교 교사)

스승의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다.
스승의 날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반갑지 않은 날이다.

스승의 날을 옮기자는 여론이 분분할 때마다, 그 날에 대한 여러 가지 패단이 메스컴에 오르내릴 때마다 교사들은 가슴이 아프다.

담임을 맡은 학부모님들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게 교사들의 마음이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받고 싶지 않은 게 교사들의 마음이다.

스승의 날 교사들의 바람은 아이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종이 꽃 카네이션 한 송이면 되고, 선생님께 고맙다고 편지 써 주는 아이들의 마음 하나면 족하다.

스승의 날이 다가 올 때마다 씩씩한 마음 한 켠에 흐뭇한 마음을 갖고 사는 데, 그 이유는 가르친 지 오래되는 제자 애들과 그 애들 부모님 때문이다.

올해도 스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주에는 일이 있어 못올거 같다며 날 찾아준 제자 애들에게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고 흐뭇함으로 마음에 목단꽃 향기가 가득한 날이다.

날 찾아 온 아이들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을 맡아서 가르친 아이들인데 이젠 같은 길을 걷는 교사가 돼 있고, 군대 갔다 와서 편입하여 대학을 다니니까 가르친 지 13년이 더 지난 아이들이다.

교직에 들어와 보람을 느낄 때가 이런 때가 아닌가 싶다. 그 누가 교사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도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진심으로 교사에게 고마움을 갖는 사람은 가르칠 때만 잘하는 학부모가 아니라 가르친 지 10년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작은 마음의 선물 하나라도 해주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아닌가 싶다.

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스승의 날이면 날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내게도 스승의 날이면 생각나는 고마운 두 분의 스승이 계시다.

해마다 작은 선물과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럼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다.

더 많은 걸 못해드려 마음에 걸리는 데도 그

‘효도하는 자식 치고 빛나가는 자식이 없다.’는 속담에 ‘스승을 잘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사람 없다.’는 말을 덧붙인다면 너무 큰 나의 욕심일까?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고마워 하고 있고, 부모님들 또한 날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두 분이 계신데 오늘 찾아 온 아이들 부모님들이다.

제자 애들은 제자 애들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잊지 않고 스승의 날마다 날 기억해주는 그 마음에 난 너무 많은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하고,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한다.

내가 해 준 건 없는 데 너무 받는 게 많은 것 같은 마음에.

스승의 날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다.

10년이 지난 답임을 해마다 기억해주고, 고마워 작은 마음의 선물 하나라도 챙겨주는 마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내가 학부모가 돼서야 더욱 느끼게 되었다. 나도 내 아이들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만 있지 그렇게 하지 못하

분들은 생각해 주는 마음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열심히 살라 격려를 해 주시곤 한다.

그 두 분은 교사로서 내가 가야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고, 내가 닦고자 노력하는 동일시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산 스승 한 분이 라도 찾아뵙고, 연락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교사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작은 소망이다.

‘효도하는 자식 치고 빛나가는 자식이 없다.’는 속담에 ‘스승을 잘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사람 없다.’는 말을 덧붙인다면 너무 큰 나의 욕심일까?★

그 해 여름

고 광 철

(수필가·한국문협 홍성군지부 회원)

그 때의 함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새벽 6시면 기상나팔 소리와 아침 점호에 이어지는 힘찬 구보소리는 15척 높은 담을 따라 우렁차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다.

저녁 10시 취침 나팔소리에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면 밤새 이어지는 동초 순찰근무에 졸린 눈 비비며 일어나 군화 끈 조여 매는 푸른 청춘이 있기에 이 땅에 질서와 평화가 이어지는 것이리라.

이제 십 년 전 저쪽 과거로 흘러간 그 해 여름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해 초 나는 갑자기 경비교도대 소대장 명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한 번 해 보려고 궁리하던 중 영농반을 한번 운영해 보기로 하고 뒷산 황무지를 이용해 채소도 기르고 닭과 토끼도 함께 길러 보기로 했던 것이다.

경비교도대 근무가 늘 그렇듯 자칫하면 매일 반복되는 경비근무에 식상해 하던지 지루하기가 쉽고, 근무시간에는 나태해지거나 무료하게 보내기 쉬운 면이 있다. 자기발전과 영농을 함으로 해서, 생명체의 소중함과 흙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삶의 진솔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일

깨움이 있기에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영농을 해보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게다가 주변의 협조와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일부러 영농대원을 뽑을 때 도시의 아파트에서만 자라고 살아 온, 농촌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대원 중에 두명을 뽑았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고참대원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던 것인데, 농촌 출신이 아닌 도시 아파트 출신을 뽑는 이유는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듯 소가족제도에 의한 아파트 생활과 과잉보호 속에서 편안함과 개인주의에 안주해 버린 그들에게 자연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땀 흘리는 생활을 해 보고 느낌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배워 더불어 사는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함께 했던 것이다.

식전이면 자욱한 안개가 끼며 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우리는 작업에 필요한 삽, 톱, 도끼, 쇠스랑, 낫, 갈퀴 같은 연장들을 준비하고 손질했다. 몇 년째 버려져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진 몇 피기의 밭에 밑거름을 넉넉히 붓고 파서 엷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쪽에는 묘판을 설

**무엇보다도 보람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
대원들이 흘린 땀으로 흙은 그 만큼 넉넉하게
보상해 주었던 것이어서 숙연하게 그
참뜻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치해서 조그만 비닐하우스를 덮어놓으니 이제 씨앗만 심으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오백평쯤 되는 아카시아와 소나무와 잡목이 멋대로 우거진 숲을 사용해 닭을 키우기로 하였다. 전체를 빙 둘러 비닐 망을 설치키로 했는데, 막사의 고참대원들을 투입하니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후 우선 묘판에 상치 씨앗과 호박, 오이 씨앗을 파종시키니 농사라고는 전혀 지어 본 경험이 없는 대원들이라 호박과 오이 씨앗을 거꾸로 심는 것이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며 간격과 덮는 흙의 분량까지 알려주는 실제의 현장실습이었던 것이다. 대원들 또한 신기한 교육이라서 진지하게 듣고 따라 배우는 것이었다. 그만큼 농사는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되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으리라.

아지랑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 질 때쯤 우리는 상치 모종을 밭에 정식하고 호박과 오이 모종도 각자 밭에 심어 놓으니 어느 덧 황무지가 농촌 풍경으로 바뀌었다. 그 동안 봄별에 대원들의 얼굴이랑 드러난 팔과 다리는 구리 빛으로 타서 시골 농부의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특히 야채 농사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것이기에 설 새없이 물을 끌어들이느라 늘

바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만큼 야채는 쑥쑥 잘 자라주었다.

진달래가 모두 지고 뒷산 산철쭉이 필 무렵에는 2주쯤 자란 병아리를 이백여 마리 사다 울타리 안에 방사시켰다. 그 동안 날마다 처치 곤란했던 잔밥을 뿌려주니 병아리들 먹이로 충분했고, 별 탈없이 잘들 자라 주었다.

이식한 후 상치와 오이 같은 채소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무척 빠른 성장을 하는 것이어서, 십여 평 남짓 심은 상치가 전 대원들의 한 끼 씹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초여름부터 열기 시작한 오이는 대원들의 부식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람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 대원들이 흘린 땀으로 흙은 그 만큼 넉넉하게 보상해 주었던 것이다. 숙연하게 그 참뜻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흐드러지게 핀 등나무 넝쿨 꽃줄기 아래로 가끔씩 김상우 교도소장님이 참석하셔서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식사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셨다.

그렇게 여름은 다가왔고,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지나던 길에 나를 찾아 경교대 막사에 들렸을 때, 나는 봄부터 채소를 기르던 닭들이 자라는 곳으로 친구를 안내하여 구경시키니

단순히 훈련하고 경계근무만 서는 것으로 생각했던 친구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친구도 그런 우리에게 무언가 돕고 싶어하는 눈치기에 나는 고참 대원들이 제대 전에 자동차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중고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 친구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튿날부터 연병장 가에 실기 훈련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S' 자와 'T' 자 그리고

그렇게 이듬해 가을, 그 차를 폐차하기까지 약 40명 가까운 대원들이 제대 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보람스럽게 사회에 나갔던 것이다.

몇 년 후 현재의 신막사가 신축되어 이사했을 때 그 당시 면허를 따고 제대했던 54기 대원들이 벽시계를 열 개씩이나 사다 기증하였다. 각 행정반과 내무반 막사에 걸려 지금도 쉬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도 벌써 결혼하

그들도 벌써 결혼하고 직장 혹은 사업을 하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노라면 가끔씩은 아스라이 멀어져 간 푸른 제복의 경비교도대 시절이 생각날 것이다. 뛰고 땀흘리고 보람있었던 그 젊은 날의 열기를 왜 잊을 것인가

'오르막 고갯길' 을 만들어 놓으니 그럴 듯 했다. 교관으로는 1호차 운전대원을 임명하고 자격은 최고참대원들부터 필기시험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 연습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다.

다음날 1종 보통 면허시험 시 사용하는 1톤 트럭이 도착했다. 그 때부터 연병장 한쪽에서는 자동차운전 실기 연습이 시작되었다. 나 또한 거기서 실기 연습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껏 운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면허 시험장이 인근 예산에만 있기에 일요일이면 대원들은 외출증을 끊고 가서 시험보고 와야 했는데, 그 때마다 합격과 불합격의 희비가 엇갈리곤 해서 우리를 기쁘게 또는 답답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고 직장 혹은 사업을 하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노라면 가끔씩은 아스라이 멀어져 간 푸른 제복의 경비교도대 시절이 생각날 것이다. 뛰고 땀흘리고 보람 있었던 그 젊은 날의 열기를 왜 잊을 것인가.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 경계근무 서던 깊은 밤 뒷산 소쩍새 소리를 어찌 잊을 것인가.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그 젊은 날들의 보람스러웠던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겠는가! 짧지 않은 인생 중 머무르고 싶었던 그 해 여름의 열기를 내 어찌 잊을 것인가.

올해도 다시금 봄이 오고 있다. 봄의 끝자락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올해도 나는 보람 있는 여름을 또 한번 맞이하고 싶다.♣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여부

이 영 진(서울지방법원 판사)

1. 사건의 개요

피고 부산시 산하 ○○공고의 교사 소외 정○
○이 1985. 10. 19. 1학년 수업에 들어가서 며칠
전에 수업시간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시험
지를 피해자인 박○○을 비롯한 수명의 학생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막대기로
그 학생들의 종아리를 2대씩 때리는데, 위 피해
자가 욕설을 하므로 그를 교단앞에 꿰어 앉힌
후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수십회 구타하여 이로 인하여 위
박○○이 평소 근시이던 우안에 망막박리의 병
증이 생겨, 같은 달 29. 망막박리유착수술을 받
고 일단 완치된 후 퇴원하였으나 색약현상이 계
속되다가 1988. 2.말 경 다시 망막박리증세가 나
타나 결국 실명하기에 이르렀다.

2. 쟁점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

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체질
적 소인의 기여도 참작 여부

3. 재판의 경과

가. 제1심(부산지법 1989. 6. 28. 선고, 88가합
6583 판결)

위 교사의 구타행위는 그 동기와 수단에 비추
어 교사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
업무상의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원고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나. 제2심(부산고법 1990. 11. 1. 선고, 89나
6549 판결)

교육상 필요하여 부득이 체벌을 가하는 경우
라면 다리, 둔부 등의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몇
대 정도 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학생의 욕

설에 감정이 상하여 수습회에 걸쳐 뺨과 머리를 구타하였으므로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워 피고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제3심(과기환송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위 교사의 체벌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하나, 위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 감액하여야 한다.

4. 해설

가. 체벌은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그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

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나.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가는 구체적 당해 사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문제되는 경우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0.10.30. 선고, 90도1459 판결 등 참조)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여 왔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체벌의 경위, 방법과 정도 및 이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사의 체벌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한편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종종 형사사건화되는 경향에 있는 바, 이 때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유무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를 판단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일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고 실시해 오고 있다.

라. 체벌이 문제로 된 민·형사 판례의 동향을 보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번 살짝 때리는 순간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 상승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측두골골절, 지주막하출혈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위 사인이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을 앓고 있었던데 연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약함을 알고 있었으나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②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고2)이 욕설을 하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여 실신시키고, 전치 10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762 판결),

③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④ 교사가 학생을 엎드리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13 판결),

⑤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그 학생을 때리게 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그 교사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 등이 있다.

마. 한편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1조 단서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무부 통첩에서는 신체에 대한 침해, 피벌자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부여하는 징계는 체벌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체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일본의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에 관한 교사의 心得' 참조).

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시간을 지나서도 교실에 남게 하는 것

② 수업시간 중 게으름을 피우거나 떠들었다고 하여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교실 내에서 있게 하는 것은 체벌이 아니다

③ 흠치거나 부서뜨렸다고 하여 학생을 벌주는 의미에서 방과 후 남게 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허용된다

④ 흠친 경우에 학생을 방과 후 심문을 하여도 좋으나, 자백과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각과 게으름에 대하여 청소당번 등의 횡수를 늘리는 것은 좋으나, 부당한 차별대우와 혹사를 시키는 것은 안 된다.

바. 이상의 이론과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벌은 원칙적·가급적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서, 교사는 체벌에 치중하는 지도방식을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교육적인 견지에서 체벌을 할 경우에는 위 교육관계법의 규정과 판례의 사례를 참조하여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 상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삶과 미래의 직업적 성공

윤 운 성

(선문대학교 교수, 학생생활연구소장)

I. 들어가며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생동감이 넘치는 시기며, 무한한 꿈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홀(Hall)은 이 시기를 '청년기(Youth)'라 부르기도 했으며, 레빈슨(Levinson)은 인생을 4계절로 나누었을 때, 이글거리는 태양과 같은 여름을 청년기와 비교하였다. 우리가 쓰는 青年, 혹은 靑少年의 '청(靑)' 역시 푸르름을 의미하며 생명력과 생동감을 함축하고 있다.

일 년은 만개의 계절인 봄, 이글거리는 태양의 계절인 여름, 결실의 계절인 가을, 그리고 죽음과 재탄생의 계절인 겨울이 있다.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각각의 계절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계절에 알맞은 행동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각각의 시기의 특징을 알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인생의 결실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중·고등 학교 시절인 청소년기는 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계절에 비유한다면 환절기라고 할 수 있다. 환절기는 각종 질병도 많아지며 가장 적응하기 힘든 때이기도 하지만, 다음 계절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건강하고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오늘날 청소년은 전통과 개혁이 혼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통의 가치와 개방의 편리함 속에서 가치갈등을 겪음은 물론,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지능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은 익혀야 할 무한한 기술과 무한한 정보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을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중시하는 현실 만족주의 경향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과거보다 사춘기는 빨리 시작되고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이는 오히려 늦어져 청소년기가 더욱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청소년은 더욱 많은 시간 동안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물음을 통해 자기 탐색을 하게 된다. 이러한 탐색에 실패하거나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참여가 없을 때 역할혼미로 인한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겪기도 한다. 또한 성취에 대한 어려움으로 심리적 유예(psychological moratorium)기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생리적인 급격한 변화로 충동적이거나 정서적 불안정으로 적응의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보다는 이상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른들은 가끔 자신의 청소년기를 회상하면서 당시의 갈등과 방황의 경험을 후회스럽게 이야기하곤 한다. 필자도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후회의 감정이 떠오르곤 한다. 당시에는 가장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들이 돌이켜보면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드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후회의 감정을 갖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 실재가 아니고 인식 속의 현실이다. 스님들의 선문답처럼 들리지만 결국, 생각에 따라 현실은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깊이 있고 폭넓게 가꾸어서 바르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을 가는 사람에는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 ‘길도 모르고 가지도 않는 사람’, ‘길을 알면서도 가지는 않는 사람’, ‘길을 알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다. 인생의 길은 무한하다. 인간은 태어나서 각자의 주어진 길을 가야하며, 가다가 잘못되면 다시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오래 갈수록 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수많은 인생의 길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가장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 선택은 행복한 인생을 향한 방향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와 갈등으로 간 길을 되돌아오는 수고를 하게 할 수도 있다.

II. 올바른 직업관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업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영위함은 물론 사

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건전한 개인의 성장 발달과 사회 발전을 이루게 된다. 고대의 씨족사회에서는 직업은 “일” 혹은 “노동”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일을 생계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의 개념이 아닌 일 자체의 기쁨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생각하는 현대적 의미의 직업 의식이 대두되었다.

교육학자인 듀이(Dewey)는 일을 놀이와 같은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람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그러한 일을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놀이처럼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또한 그 일이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고 개인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직업일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적 소속감 속에서 정신적 안정을 갖게 되며, 사회 각 분야에 일익을 분담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직업은 인간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인간과 사회와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다. 직업은 개인의 소질과 재능에 따른 개인적 보상 획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분담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며 자기실현과 자기발전을 이루는 역할 역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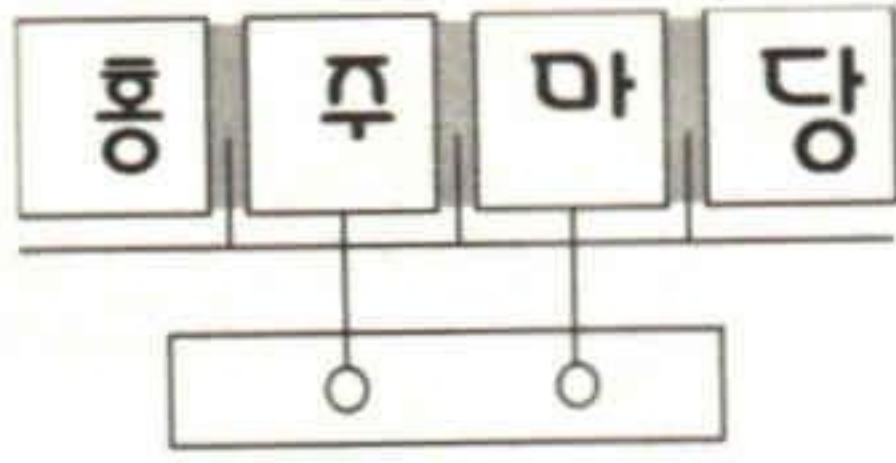
우리는 가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보다는 체면이나 사회적 평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게 될 대학의 과나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특기나 적성보다는 합격 여부만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을 외적 조건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재의 많은 제도나 사회적 조건들이 청소년들의 선택을 가로막지만 이를 환경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과를 선택하게 되어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갖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일전에 대학 4학년의 제자가 찾아온 적이 있다. 미생물을 전공하는 그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졸업 후 사진관을 개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물어보니 “대학 입학은 수능 점수만으로 들어와서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게 되고, 주말마다 여기저기서 수 백 통의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열심히 한 결과 직업으로 선택해도 손색이 없을만한 수준으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공대를 졸업 후 공학 관련 회사에 근무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출판사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대를 나와 우리 나라 최고의 컴퓨터바이러스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위의 예들은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궤도를 수정하여 성공한 경우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생을 후회와 갈등 속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고 신중하게 여러 가지 직업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세상에 공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 필자 약력 ▶

- ◆ 필자 : 윤운성(1957년생, 선문대학교 교수, 학생생활연구소장)
- ◆ 주소 : (H) 충남 천안시 쌍용동 라이프타운 102-802/ (O)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선문대학교 산업심리학과
- ◆ 연락처 : (O) 041-530-2531/ (H) 041-571-0657, (HP)011-448- 0657/ Fax: 041-530-2973,
041-530-2531/ E-mail: ysyoun@omega.sunmoon.ac.kr
- ◆ 학력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 충남대 대학원 교육심리전공, 미국 테네시주립대학교(Univ.
of Tennessee) 대학원 교육심리 및 상담전공/ 미국 멤피스대학교(Univ. of
Memphis) 대학원 교육심리전공(교육학 박사)
- ◆ 경력(현재) :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이사/ 한국교육심리학회 이사/ 한국성인
교육학회 총무이사/ 한국발달장애학회 이사/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전문위원/
대전충남 교육학회 이사/ 충남포럼 감사/ 천안상공회의소 부설 경제연구소 연
구위원/ 한국에너지그램센터 자문교수/ 한국에너지그램학회 회장/ 최우수 연구
교수상 수상/ 직업상담사 시험문제 출제위원/ 충남교원연수원, 충북단재교육원,
서울대 중등교원연수원, 한국심성교육개발원, 각 기업체 강사, 천안외국어대학
교수(역임), 선문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학과장),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주임교수, 학생생활연구소 소장
- ◆ 주요 저서 : Academic achievement of Asian-American students: relating home
environment and self-efficacy(1993)/ 교육학개론(공저, 양서원, 1994)/ 학습과
동기전략(문음사, 1995)/ 교육심리학(상조사, 1995)/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요?(양서원, 1996)/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공저, 상조사, 1996)/ 현명한 부모:
발달하는 아이(역서, 동문사, 1997)/ 자녀행동수정 4단계(서울, 양서원, 1998)/
성격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역서, 학지사, 1998)/ 교육심리용어사전(공저, 학지
사,1999)/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격유형검사의 개발과 적용(천안상공회의
소, 2000)/ 성공인의 성격관리: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분석(공역서, 학지사,
2001)/ 생활지도와 상담(양서원, 2001)/ 교육의 심리적 이해(양서원, 2001) 등
논문다수.



채 짝

박 미 연

(홍성읍 구항면 태봉리)

마루에 아기 햇살들이
놀다간 자리에
소포와 서신이 뜨겁게
데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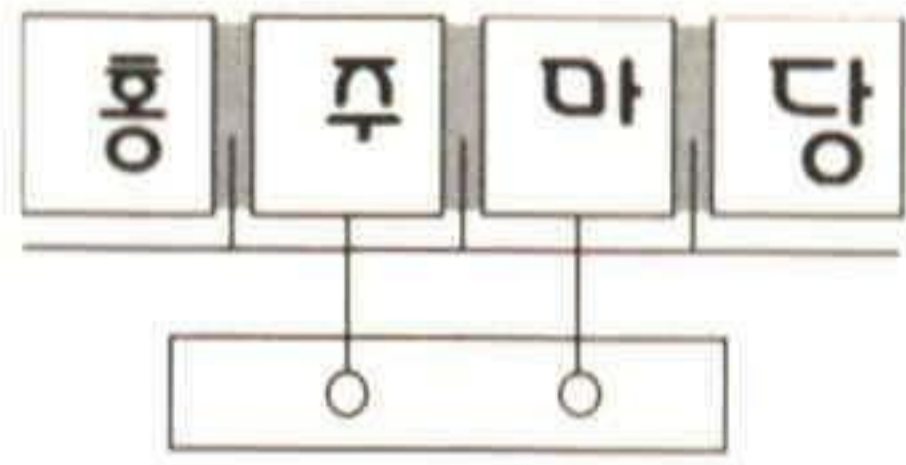
찾아 와준 손님
다정한 눈 빛 모르지만
피봉의 글씨 귀를 기우리며
밝음의 가상을
곱게 뜯어본다

잔설따라 진달래 붉게
물들던 땅
큰 가슴 출렁이며
아침과 군림을
사랑하지 못하던
봄날들이 그리웠을까

사는 모습
작은 소견에

어깨를 나란히 내주며
이것이 삶이라고 토닥거려준
따뜻한 배려

또 한번
심한
매를 맞았다



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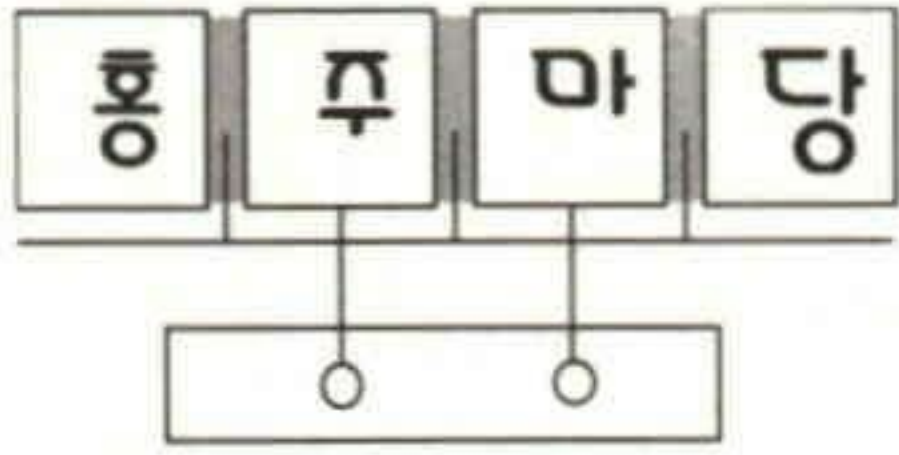
정 명 순

(홍성읍 대교리 344-4)

밤 깊은 시골 길
이른 봄비인가
자동차 불빛에
빗방울이 툭툭 춤을 춘다

무심코 겨울을 지나던
자동차 바퀴
아뿔사!
거리로 튀어나온
봄의 신생아들

봄이 가슴으로
섬뜩하게 들이 닥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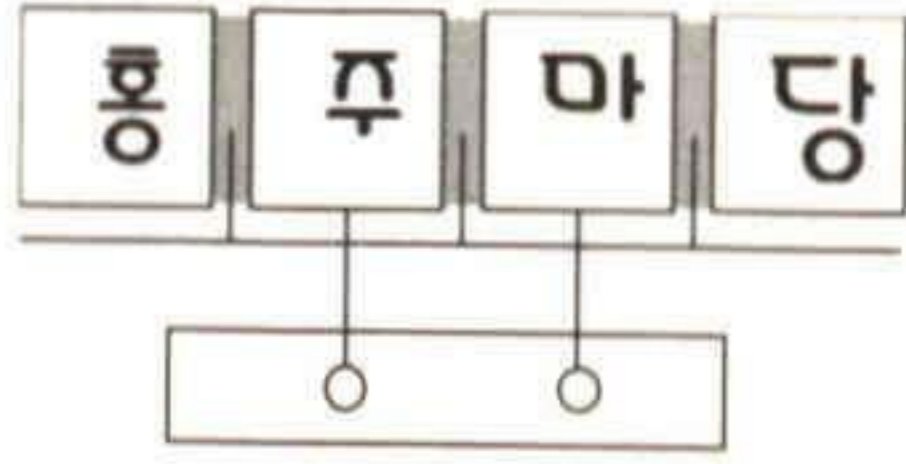


마 음 속

김 임 무

(홍성읍 오관리)

봄이 오면 싹이 솟아나는구나
여름이면 싹은 커서
마음의 문을 활짝 핀다
가을이면 오색단풍이 지어서
무지개가 되는구나
겨울이면 낙엽이 지고
양상한 가지에는
까치만 지저거리는구나
반가운 손님은 안오고
하늘과 땅은 비밀이 없건만
하나님이 주신 육신들은
거짓말로만 울고있구나
아아아
흰눈이 되고 싶구나
한많은 인생이여
찬바람이 매섭구나
모두다 뭉쳐서 태양을 보면서
활짝 웃어나 보자



동창회

이 영 희

(홍성읍 오관리)

며칠전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받아보니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친구 전화였다.

‘이 나이에 뭘’ 하면서 수화기를 내려 놓았는데 오늘은 하이얀 봉투에 낫설은 이름의 서신 한 통을 받았는데 궁금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개봉해 보니 동창회 일정의 공문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항상 바쁜 일정으로 꽉 짜여진 생활속에서 살다보니 머리로 식힐겸 참여해 보고픈 생각이 들면서 옆도 바라볼 여유없이 달려온 삶의 시간을 다시 뒤로 돌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 지면서 참여해 보겠다는 전화를 해 주었다.

아침 일찍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속도로에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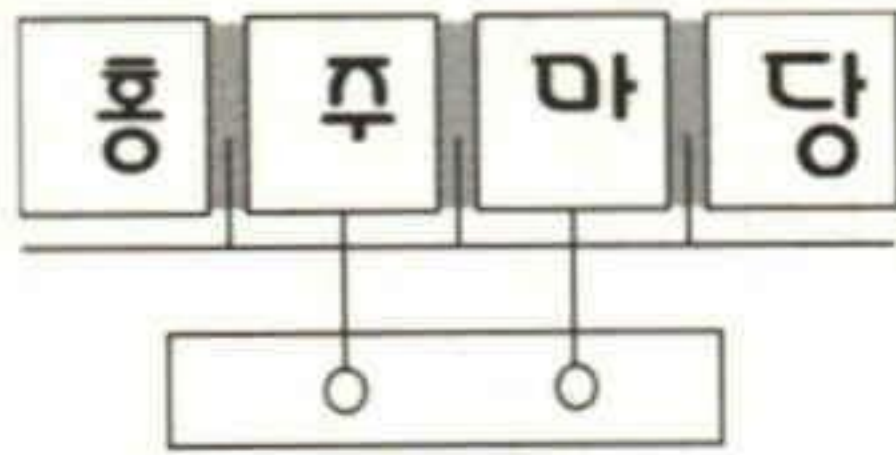
입하니 오산-죽전간 정체가 심각하여 꼼짝할 수 없이 도로에 갇히는 신세가 되면서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친구들을 보고싶어 발을 동동 구르며 핸드폰만 눌러댔다.

한 시간 정도 정체되고 거북이 걸음으로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어느새 친구들은 모여 회의가 진행중이었다. 모두 반갑고 부끄럽기도 하고...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볼 때가 된 것 같은데도 두근대는 설레임은 마냥 즐겁고 흥분이 되었다.

하나 하나 모습들을 눈으로 좇으면서 감회가 새롭기만하고 늘어난 주름살과 비대해진 몸집, 하이양게 퇴색 되어가는 머리칼은 마음을 서글프고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다.

많은 친구들의 표정 속에 숨겨진 삶의 애환이..☹



야영

이영희

(홍성읍 오관리)

지난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다.

올 방학은 어떻게 보내야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까? 고민 하던중 가까운 친구들의 권유로 아무런 기대감이라든가, 설레임 없이 시원한 곳으로 야유회를 떠났다.

보령군 성주면에 있는 성주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들어서면서 내 마음은 어느새 가슴 가득 경이로움에 감탄사를 보내며, “홍성 가까이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며 꼭 한번 더 찾아오리라 생각 하던 중에 우리 학원생들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이곳이야!

주위 환경을 다시 돌아보니 수영장과 숲이 우거져 있고 골짜기에 흐르는 청아한 물소리, 또한 조용하게 기어가는 다슬기, 맑고 깨끗한 물속에 고기떼, 모두 학원생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다. 서둘러 돌아온 난 이야기를 빨리 해 주고 싶어 그날밤 잠도 이루지 못하고 설쳐댔었다.

1박 2일의 야영을 생각하며 원목으로 만들어 놓은 작은 숲속의 통나무집을, 그림속 이야기 집처럼 지어놓은 다섯채의 통나무집 하나를 예약하게 되었다.

7월 21일 오후 3시 출발.

처음엔 20여명이 참여에 동의 했었으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자는 줄어들어 소위 말하는 부대의 소대원 정도로 출발하게 되었었다.

학원에서 15시에 출발하여 도착은 16시 40분.

짐을 풀고 각자 준비해간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뛰어갔다. 혼자 남아서 짐 정리를 하고 저녁준비에 들어가면서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르기 시작했다.

수영장은 계곡의 물이 흘러내려와 가둔곳으로 이끼와 낙엽수가 등실 떠다니고 있어 조금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욱 정감이 가는 오염되지 않은 곳이라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뛰어 놀다 까치동(통나무 집)으로 돌아왔다.

15평의 통나무 집.

큰 방 하나에 거실, TV, 냉장고, 썩크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린 뒤, 넉넉하게 준비해간 식사준비는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되면서 모두 만족감에 연실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아이들의 지저귀음 소리는 숲속의 나무내음새와 동화되어 새들의 노래소리로 변화되고, 피어나는 해바라기 꽃이 된다. 맛있는 저녁식사 후 기념사진도 찍고, 아이들의 솔직하고

구김없는 미소속에서 난 가끔 가슴이 철렁거렸다. 저 맑고 깨끗한 눈망을 속에 이 작은 원장선생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가끔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 웃고, 떠들고, 뛰고, 어둠의 거미가 가느다란 실타래를 타고 내려올때까지 일행 모두는 숲속에서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다녔다.

저녁 놀이는 '핸드폰걸이' 만들기.

준비해간 띠종이와 본드, 반짝이는 큐빅, 노란 오리걸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손을 움직인다.

각자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하여 꼭꼭, 촘촘히 말아야 하고 구멍이 작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며 열심히 만들었다. 그위에 반짝이는 큐빅을 박고, 한군데 모아 정착시킨다. 마무리 작업은 내 차지. 실리콘 총으로 모양을 만들어 완성시켰다.

작은 손바닥 위에서 반짝이는 작품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만족감, 성취감에 기쁨은 두배로 늘어나고, 보고 또 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하루 여정에 푹아 떨어지고 조용한 사색의 시간 잠시 우리집 아이들(내 자식) 생각을 해보니, 마음이 아려왔다. 큰아이 어느새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딸아이 대학 4학년. 몇 번이나 아이들과 집을 떠나와 즐겨본 적이 있었던지...

마음에 가책을 느끼며 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 했을까?

죄책감이 들었다. 어릴적 추억이 성장하면서 삶에 큰 영향이 미친다고 했는데 난 내 자식들과는 많은 시간을 놀이라든가 여행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 아! 난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이기속에서 나 개인시간은 활용을 잘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무력하게 보내온 시간이 아까와 무척이나 발버둥 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있었지만 자식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적고 소홀했었다는 자책감에 또

한번 깊은 곳이 메어져왔다. 그러기에 대신 학원생들에겐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해보며 상업수단이 아닌 내 자식처럼 교육은 물론이고 방학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겨울이면 눈썰매장, 여름이면 수영장, 가을, 봄 소풍 또한 작은 피아노 발표회, 피아노콩쿨 등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내 자식들과는 많은 추억거리가 없지만 대신 많은 것을 학원생들과 함께 하려 한다. 때늦은 후회로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른 새벽. 학원생들을 깨워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울창하게 덮혀진 산속길에서 재잘재잘 떠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다시금 살아있다는 마음과 "정말 잘 왔구나"하는 안도의 한숨도 나왔다.

아침식사 후. 학생들을 데리고 석탄박물관으로 향했다. 1950년대~1999년 까지 석탄의 발전사가 기록되어있는 영상화면도 보고, 석탄을 켤 때 사용되던 도구들도 관찰하고, 모의갱도를 타고 내려가보니 냉풍욕장에 도착 냉풍욕도 하고, 일행은 대천 해수욕장으로 달렸다. 차창에 스치는 달콤한 바람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집생각을 모두 잊게 만드는 것 같았다.

놀이 동산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모두들 바닷가로 뛰어갔다. 태풍이 오고 있다는 기상예보에 주의하며 파도도 높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수영은 하기 어려웠고, 모래사장에서 1시간정도 소요한 뒤 귀가길에 올랐다.

아이들 중에는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와 야영을 하는 아이가 있었지만 모두 즐겁고 보람된 시간속에서 1박2일의 야영을 끝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여름방학의 짧은 야영시간은 참가한 모든 아이들에겐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로 다짐해 본다.♥



생활의 지혜

편 집 부

【땀 많이 나는 사람이 여름을 잘 지내려면】

☞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발바닥에 물파스를 발라보자.

발바닥은 발한급소이기 때문에 물파스를 바를 경우 대뇌에 있는 발한 중후에 영향을 미쳐 땀이 나는 것을 억제한다.

【생선을 잘 보관하려면】

☞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다듬어 주긴하지만 내장이 남아있으면 쉽게 생선이 상하므로 내장을 깨끗이 씻어 바로 요리하거나 냉동실에 넣어 보관한다.

【기미를 없애려면】

- ☞ 자기전에 생수 한 컵에 다시마를 담가 놓았다가 일어나자마자 마신다.
- ☞ 약쑥을 절구에 찧어서 울무가루와 섞은 후 얼굴에 골고루 펴바른다.

30분 후에 떼어내고 세안 후 스킨으로 마무리 한다.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하면 효과가 좋다.

☞ 녹차가루를 요구르트에 섞어 매일 한 병씩 마시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한 우유를 쉽게 구별하려면】

☞ 우유가 상했는지 쉽게 구별하려면 우유를 냉수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된다. 우유가 물에 퍼져 물이 흐려지면 상한 것이고, 퍼지지 않고 아래로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다.

【마시다 남은 맥주를 처리하는 방법】

- ☞ 남은 고기에 마시다 남은 맥주를 넣어 담가 두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진다.
- ☞ 머리카락을 탈색하고 싶을 때 맥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갈색으로 변한다.

홍성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 회원모집 취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저희 홍성문화원이 새롭게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정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우리고장 홍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저희 홍성문화원과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주민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혜택

- 문화원발행 정기간행물 배부
- 문화원개최 행사에 초청
- 문화원 보유자료 열람 및 대출

■ 회원가입

- 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1년회비 : 20,000원

■ 문의사항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우:350-807)
- 전 화 : (041) 632-3613, 634-9659
- 팩 스 : (041) 633-1199

표지화 작가소개

이 동 원



-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전
- 여성 공모전
- 시선전
- 현 시선전, 한국미술협회 회원
- 주소 : 충남 홍성군 · 읍 남장리 미성@ B동 613호
- 전화 : 041-634-5512
- 표지제목 : 「봄 4 20F」

편집후기

메말랐던 농촌의 논과 밭에 단비가 내려 농촌에서는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비가 내리자 비가 오지 않아 일할 의욕을 잃은 농촌의 얼굴이 오랜만에 해맑은 웃음을 띄우며, 끝내지 못했던 모내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비가 더 내려 농민들의 마음에 새롭게 자라난 희망이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우기를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홍성문화

2001. 여름

발행인 이 하 영

편집인 정 재 범

편집주간 구 제 기

발행일 2001년 6월

발행처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 (041) 632-3613, 634-9659

1989. 11. 23 등록번호 충남바01100

인쇄처 조양인쇄사(TEL(041)632-2363)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저희 홍성문화원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홍성의 미래를 의식하며 더 밝은 홍성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창출의 산실로 꾸려가려 합니다
서예교실, 소리장단교실, 한문교실, 닥공예인형교실, 주부노래교실, 사진교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와 현직교사들을 모시고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강 좌 안 내 ▶

구분 요일별	프 로 그 램	시 간	과 정	내 용	회 비
월	서예교실 (1층)	오 후 2시~4시	9개월과정	서 예 기 본 부 터 배 우 기	15,000원
화	소리장단교실 (2층)	오 후 2시~4시	9개월과정	민 요 및 가 요, 장 구 장 단 배 우 기	15,000원
	주부한문교실 (1층)	오 후 2시~4시	9개월과정	기 초 생 활 한 자 교 육 및 명 심 보 감 강 의	15,000원
화, 목	닥공예인형교실 (1층)	오 전 10시~12시	기 별 3개월과정	종이 를 이 용 한 인 형 작 품 만 들 기	20,000원
수	주부노래교실 (2층)	오 후 2시~4시	년중	가 곡, 국 내 가 요, 외 국 가 요 등 노 래 배 우 기	15,000원
	사진교실 (2층)	오 후 7시~8시	기 별 3개월과정	카 메 라 및 사 진 기 술 의 실 기 강 의 및 야 외 촬 영	20,000원

■ 집 수 : 수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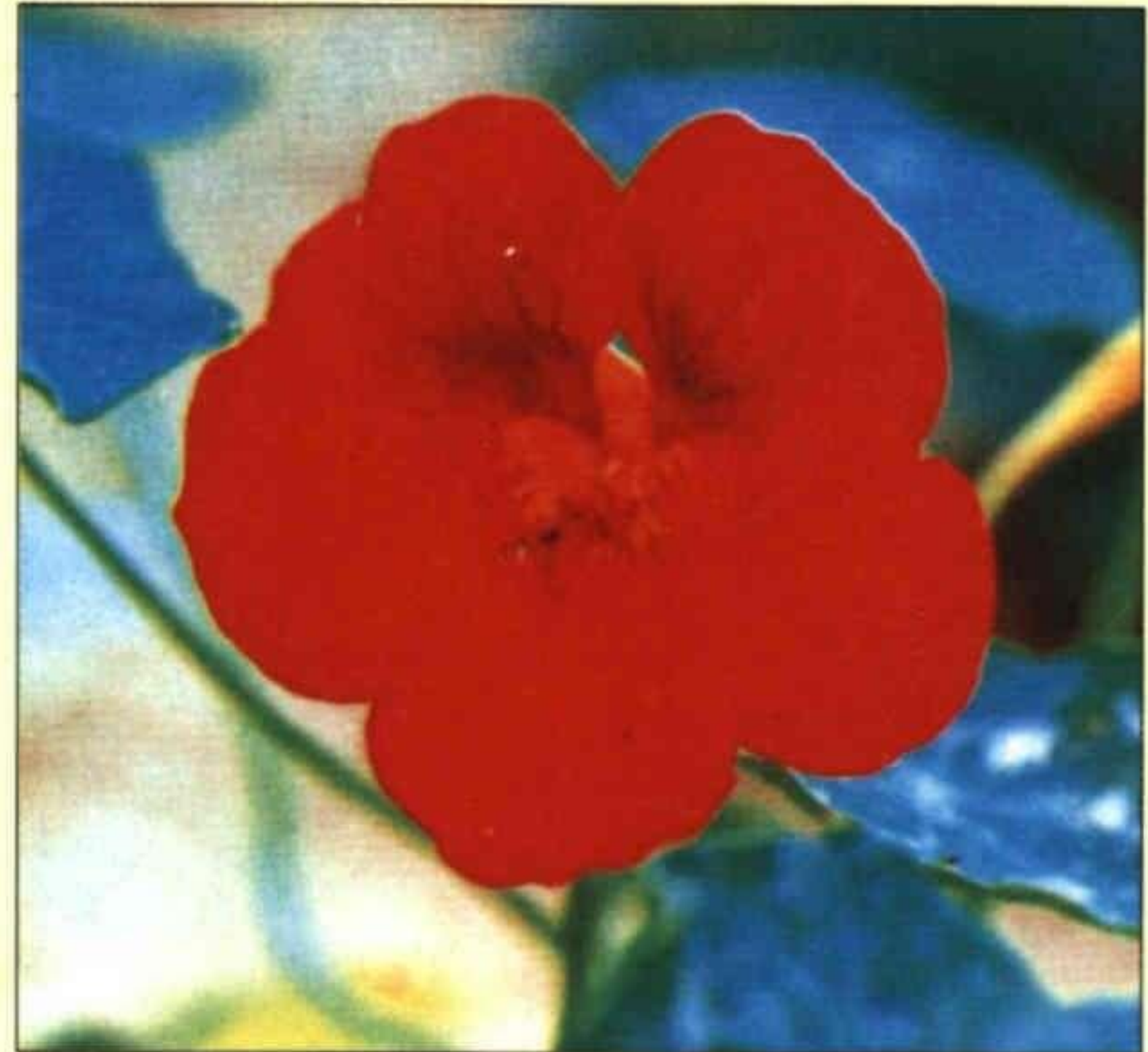
■ 장 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문 의 처 : 홍성문화원 사무국(☎ 632-3613, 634-9659)

※ 개강일시는 강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홍성문화원은 항상 여러분과 가깝게 있습니다 ○

거울 보기



《홍주골 우리꽃:플록스》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기 위하여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리보고 저리 보아도
분명 자신의 얼굴임에 틀림없는데
송두리째 속고 만 자신의 얼굴이 끝없이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속인 사람보다도 오히려 속은 자기 자신이 훨씬 불쌍하고
즉슨해 보였습니다.
"에이, 미련한 것!"
고개를 돌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이미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기의 얼굴 모양인데
오른쪽 귀가 거울 속엔 왼쪽에 있었고
왼쪽 눈이 거울속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는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러다가
비로소 모르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울 유리 뒤에 하얗게 문힌 은빛의 (漆)!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금빛인 양
무엇이든 사실처럼 비춰주는 마커의 얼굴 은백색 주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것이 거울 유리뒤에 탐욕으로 얼룩을 이룬 채
저주처럼 칠해져 있었습니다.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㉞

제 길을 제 스스로 가게 밝혀주는